

2021 K LEAGUE TECHNICAL REPORT

2021 K리그 기술보고서



K LEAGUE

2021 K LEAGUE TECHNICAL REPORT | 숫자로 보는 K리그 하이라이트



2021시즌 K리그가 장장 9개월여 레이스 끝에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즌 K리그1과 K리그2의 데이터와 지표를 분석한 시즌 총괄 분석보고서 ‘2021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함께 내놓습니다.

2021시즌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한 두 번째 K리그였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시즌에는 K리그1, K리그2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 경기를 모두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안전 관리로 경기장을 지킨 덕분입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각 구단 관계자와 현장 스태프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상 속에서도 승부를 놓고 벌이는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K리그1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팀은 마지막 라운드에서야 확정되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다투는 3위권 싸움도 시즌 내내 그 주인공을 바꿔가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승격한 두 팀(제주, 수원FC)이 나란히 파이널A 진입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강원과 대전의 승강플레이 오픈는 누구도 예상 못한 각본으로 전개되며 이번 시즌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FA컵 결승에서 전남이 대구를 꺾은 일도 놀라웠습니다. K리그2의 경쟁력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흐름과 승부의 변곡점을 이번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리그 기술연구그룹(TSG)이 1년 동안 쌓인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해 밀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2021시즌 오버뷰를 통해 한 시즌의 흐름을 훑어볼 수 있습니다. K리그1 우승 감독, K리그2 우승 감독과의 인터뷰는 K리그에서 지녀야 할 ‘위닝 멘탈리티’에 관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K리그를 관통한 전술적, 기술적 패턴도 알차게 분석했습니다. 득점, 세트피스, 역습, 압박, 빌드업, 골키퍼, 점유율, 크로스로 그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K리그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직관적 이해도도 높였습니다. 웹을 통해 관련 경기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축구는 기록의 스포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안으로 한발짝 더 들어가면 새로운 그라운드가 펼쳐집니다. ‘2021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통해 K리그를 보다 풍부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K리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감독과 선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라운드에서 일상이 꾸러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구단 관계자 및 스태프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처럼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축구팬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 권 오 갑



CONTENTS

인사말	숫자로 보는 K리그 하이라이트	02
TSG	2021 K리그 기술연구그룹 INTERVIEW 기술위원장 박태하	04 06
01	2021 SEASON OVERVIEW	08
	STORY OF THE 2021 SEASON	10
	INTERVIEW K리그1 우승감독 김상식	20
	INTERVIEW K리그2 우승감독 김태완	22
	TEAM OF THE YEAR K리그1	24
	TEAM OF THE YEAR K리그2	26
02	2021 K리그 TALKING POINTS	28
	TOPIC 1 원백, 전술 다양성의 중심에 서다	30
	TOPIC 2 변칙의 기술	32
	TOPIC 3 코로나 시대의 피지컬 코치	34
	INTERVIEW 주닝요(포항 피지컬 코치)	
	INTERVIEW 한상혁(성남 피지컬 코치)	
03	ANALYSIS	36
	GOAL SCORING 득점 분석	38
	SET PLAYS 세트 플레이 분석	42
	COUNTER ATTACK 역습 분석	44
	PRESSING 압박 분석	46
	BUILD UP 빌드업 분석	48
	GOALKEEPING 골키퍼 분석	50
	POSSESSION 볼 점유 분석	52
	CROSSING 크로스 분석	53
04	TEAM PROFILES	54
	K리그1	56
	K리그2	68
용어정리	비프로11(BEPRO11) 데이터 정의	78



2021 K리그 TSG 조직도

기술위원장 박태하	
연맹 영상분석관 서현규	
기술위원(총 11명)	
김인수 (전 울산 코치)	이경춘 (KFA 강사)
당성증 (전 대구 감독)	이규준 (KFA 강사)
백영철 (KFA 강사)	이도영 (KFA 강사)
변재섭 (전 울산 코치)	최승범 (KFA 강사)
서동원 (전 고려대 감독)	최윤겸 (전 제주 감독)
서효원 (KFA 연구팀장)	

K리그 전술·전략 싱크탱크

지난해 출범한 K리그 기술연구그룹(TSG, Technical Study Group)은 말 그대로 K리그의 기술 향상을 도모한다. 2021시즌에는 그 역할이 확대됐다.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에 참가한 K리그 네 팀이 모두 조별리그를 통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시대 K리그의 화두는 매력적인 상품 만들기, 즉 경기력 개선이다. 경기력에는 경기 진행, 전술, 시설 관리 등의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TSG는 이 중 전술, 기술, 피지컬, 심리 등 기술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다. 2020년 출범한 K리그 TSG는 현재 박태하 기술위원장 외 11명의 기술위원과 1명의 영상분석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위원 11명 모두 P급 라이선스 보유자일 만큼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신경 썼다. P급 라이선스는 프로 감독이 가능한 최상위 라이선스다. TSG의 업무는 K리그를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경기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제안하는 데가 지이른다. 이번 시즌에는 그 역할이 확대됐다. 경기감독관이 담당하던 선수 평가 업무가 올해부터 TSG로 이관됐다. 선수 평가, 팀 분석보고서 등 K리그의 기술적 기록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뤄졌다. K리그 유소년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TSG의 일이다. 22개 프로 팀 산하 유스 선수들의 기록(훈련 결과, 피지컬 데이터 등)을 프로 선수가 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는 일도 포함

된다. 이렇게 되면 선수 강약점 분석은 물론 활용도까지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요컨대 TSG는 K리그 전술·전략의 싱크탱크다. 2021년 역점을 두고 진행한 업무는 7가지다.

경기 평가

경기 현장 업무 전문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감독관 1명이 현장에서 운영을 관리하고 경기를 평가했다. 경기감독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시즌부터는 K리그1, K리그2 모든 경기 현장에 2명(경기감독관 1명, TSG 기술위원 1명)을 파견했다. TSG 위원이 경기 평가를 전담하게 되면서 경기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기술위원의 주요 업무는 MOM 선정, 선수 평점 부여, 경기 베스트11 선정, 경기 총평 작성이다.

라운드별/월별 최고 선정

현장 평가를 토대로 매 라운드 경기 평가 회의를 진행했다. K리그 베스트11, 베스트 팀, 베스트 매치, MVP를 선정하는 자리다. 선정 기준은 전문가 시각(TSG 기술위원 현장 관련 평점), 객관적 지표(BEPRO11 데이터 평점), 비교 평가(경기평가회의 기술위원)를 모두 참고한다. 한 달 간 쌓인 데이터는 다시 월말 평가에 반영된다. 이달의 선수(1차), 이달의 감독, 이달의 영플레이어, 이달의 골이 선정 대상이다. 결과는 전략사업팀과 콘텐츠팀 등 유관부서에 전달되며 이후 시상까지 이어진다.



유럽리그 경기 분석 영상 제작

K리그 내 전술 다양화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공유했다. 유럽 5대리그 전술 분석 영상이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감독과 코칭스태프 지원 차원이다. 영상 제작은 분석 밀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중계 영상이 아닌 와이드 앵글 경기 영상을 확보한 이유다. 중계 영상은 특정 시점에 국한되어 전술 분석에 한계가 있다. 기술위원들은 배경된 경기를 시청하고 전술적으로 유의미한 장면으로 분석 보고서를 만든다. 이를 토대로 영상분석관이 영상 자료를 제작해 전 구단과 공유했다.



ACL 상대팀 전력분석 지원

올해 ACL에 참가한 K리그 팀은 모두 네 팀(전북, 울산, 포항, 대구). K리그 구단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TSG도 지원했다. 시즌 중 시간 및 자료 부족으로 ACL 대비에 부담을 갖는 팀들에게 사전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상대팀의 자국리그 최근 3-5경기 분석이 주를 이룬다. 공격 양상 특징(공략점, 유의사항)과 수비 양상 특징(공략점, 유의사항), 주요 포메이션, 키 플레이어 등을 분석해 경기 영상 원본과 함께 각 구단에 전달했다. 그 성과로 올해 ACL에 참가한 K리그 전 구단이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이 중 포항은 결승까지 진출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포항 김기동 감독은 “TSG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이 상대 전력 분석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FC 팀 매니저는 “영상 업로드 비용 문제로 상대팀 경기 영상 자료가 부족했는데,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미디어콘텐츠 ‘전술후술’

전술 분석 콘텐츠에 대한 팬들의 니즈에 충족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했다. K리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TSG 전술후술이라는 동영상 시리즈를 제공했다. 현재 13개의 콘텐츠가 업로드 되어있다. 축구중계로 익숙한 김수빈 캐스터의 내레이션을 추가해 영상 가독성을 높였다.



기술위원 별 팀 담당제

TSG 주요 업무인 분석보고서 작성에 전문성을 강화했다. 기술위원 별로 K리그1 한 팀씩 배정했다. 시즌 내내 해당 팀을 밀도 높게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한 차원이다. 분석보고서는 시즌을 3구간으로 나누어 총 3회 작성되었다. 포메이션, 공수형태, 선수단 평가, 순위 요인 분석 등이 주를 이룬다. 관련 내용은 이번 ‘테크니컬리포트’ 제작에 활용되었다. 그밖에 미디어에서 특정 팀이나 선수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을 담당하는 TSG 위원의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상벌의견 및 기록 정정 검토

경기 중 논란이 발생한 사안에 관해서는 TSG 경기평가회의와 KFA 심판소회의에서 해당 장면을 검토한다. TSG 내부 논의를 거쳐 사후 감면 혹은 사후 징계에 관한 종합 의견을 취합한다. 이를 상벌위원회에 전달하면, 상벌위에서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하는 프로세스다. 울산 원두재(31R) 사후 감면, 대구 이용래(29R) 사후 징계 등이 이번 시즌 대표적 사례다. 기록 정정에도 의견을 낸다. 현장에서 도움이 인정되지 않은 득점에 대해 구단의 검토 요청이 있었고, TSG 내부 논의 후 도움 인정 기록 정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상협(포항)과 김보경(전북)이 도움 기록을 하나씩 추가했다.

2022 K리그 TSG는...

2022시즌에도 K리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는 계속된다. 세계축구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럽리그 분석 영상 및 ACL 출전 K리그 팀을 위한 상대팀 전력 분석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U-22 의무 선발 제도, 교체 인원 확대 등 K리그 제도 변화가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분석한다. 허위 부상, 시간 지연, 수비 축구 등 경기력 저하 요소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술위원장·감독 간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장과 연맹의 새로운 가고, 박태하 기술위원장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는 계속해서 진화 중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박태하 기술위원장은 P급 라이선스를 보유한 이들로 기술연구그룹(TSG)을 꾸리고, 현장과 연맹 사이를 분주하게 오갔다. 작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목표만은 확실하다.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리그

박태하 기술위원장은 기준이 확실하다. TSG 위원을 선정하면서 P급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삼았고, 이들이 계속해서 K리그1 한 팀을 담당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다. 기술위원회 운영 자체가 아니라 기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적인 기술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리그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초 기술위원장에 취임하고, 2021 기술연구그룹(TSG) 운영하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나?

기술연구그룹(TSG)이 단순히 K리그를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구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집단'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시즌 운영 중 구단이 필요하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아 연구 및 분석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여러 환경을 갖추는 것을 부임 후 첫 번째 업무로 추진했다. 전문성이 보장된 P급 라이선스(프로팀 및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는 최상위 자격증) 보유 혹은 수강 중인 국내 지도자들로 TSG를 구성했고, 그들의 분석보고서를 영상자료로 만들 영상분석관을 연맹에 채용했다. 해외 경기영상제공 플랫폼 계약을 통해 분석을 위한 와이드앵글 영상도 확보했다.

전원 P급 라이선스 보유 혹은 수강 중인 국내 지도자들로만 TSG를 구성한 이유가 있나?

첫째는 전문성이고, 둘째는 공신력이다. 우선, P급 라이선스 자체가 전문성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다. P급 라이선스를 얻으려면 장기간의 연구와 훈련이 필요하다. TSG 기술위원은 매월 해외리그 경기를 보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K리그1 한 팀을 담당하여 시즌 구간별 분석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전문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경기를 제대로 분석해서 이를 보고서에 담는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둘째로, 매 라운드, 매달 평가회의를 통한 우수 선수를 선정하는 게 TSG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축구는 단순한 기록 스포츠가 아니기에 라운드 베스트11, 라운드 MVP, 이달의 선수 등을 선정할 때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팬들 사이에 이견과 논쟁은 당연히 발생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했다. P급 라이선스로 전원을 구성하며 공신력을 확보해 그러한 외부 논쟁을 최대한 발생시키지 않으려 했다.

K리그 기술위원장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나?

중간자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경기 현장에 있었던 경기인 출신이 리그 행정의 중심부로 들어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참 흥미로웠다. 경기가 벌어지는 현장과 행정을 하는 연맹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적기에 오해도 많이 발생한다. 기술위원장은 그 중간 지점에 있다 보니, 소위 말하는 가교 역할의 책임이 가장 막중했다고 생각한다. 연맹 내에서는 리그 운영과 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경기현장에서 나올 법한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 반대로 연맹 행정에 대한 지도자들의 오해가 있다면 직접 만나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아 연맹에 전달하기도 한다. 1년 동안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서로의 입장이 균형을 맞추어 리그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양방향의 소통창구가 되어 현장과 연맹을 열심히 오갈 계획이다.

오랜 시간 그라운드와 밀접한 현장에서 지내다 감독과 코칭스태프를 지원하는 행정 업무를 맡아보니 어떤가. 이름만 걸여놓은 축구인이 아니라 실무형 위원장이라는 평이 자자하다. 가장 흥미로웠던 업무는?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기술위원장은 가교다. 흥미롭게도 나는 선수 생활을 할 때도 그런 환경에 많이 있었다. 양 쪽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데 조금 익숙하다. 연맹에 와서 보니 그라운드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다. 정말 많은 이들이 리그

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리그 운영은 더 어려워졌다. 기술위원장 자리에서 좀 더 우리 리그를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었다.

기술위원장이 바라본 2021 K리그 경기력에 대한 평가와 아쉬운 점은?

K리그의 경기력은 ACL에서 거둔 좋은 성과가 증명하듯이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 한다. 아시아 무대에 있는 다른 리그와 비교해서 한국 선수들의 경쟁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속도와 압박 측면에서 우리 팀들이 뛰어난 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력에 있어 올해 아쉬운 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프리시즌의 완성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동계훈련지 섭외와 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가격리로 인한 외국인 선수 합류가 늦어지면 팀 전술 완성도와 외국인 선수의 리그 적응도 늦어지는 느낌이었다. 이는 시즌 초 대부분의 구단이 다소 수비적인 양상을 보이는 문제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에는 다소 아쉬웠다고 평가한다.

두 번째는 허위 부상으로 인한 경기지연 상황이다. 올해 매주 경기현장에 가면서, 심각한 부상이 아님에도 공이 아우터되어 중단될 때까지 경기장에 누워있는 상황을 많이 목격했다. 이러한 행위는 경기 흐름을 끊어 양 팀 경기력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양 팀 선수, 지도자들을 흥분시켜 불필요한 시간지연을 추가로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선수 및 지도자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를 위해 감독 미팅과 선수단 교육에서 적극 논의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01 2021 K LEAGUE OVERVIEW

2021시즌 K리그에서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의 양강 체제가 두드러졌다. 두 팀은 시즌 초반부터 선두권을 형성했고, 시즌 막판에도 치열하게 1위 싸움을 벌였다. 시즌 중 울산이 장기간 독주에 나서기도 했으나 전북의 우승 DNA가 기여하여 울산을 넘어섰다. 전북은 K리그 최초 5연패 및 9회 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다. K리그2에서는 김천상무가 시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승과 승격을 확정했다. 두꺼운 스쿼드로 탄력적인 운영을 펼치며 시즌 내내 경쟁팀들을 압도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강원(K리그1)과 대전(K리그2)이 맞붙었다. 1차전에서는 대전이 1-0으로 승리했다. 2차전에서도 대전이 선제골로 더 멀리 달아나는 듯했으나 강원이가 4골을 몰아치며 4-1 대역전승을 거뒀다. 2021시즌 K리그의 대미를 장식한 명승부였다.

2021 K리그1 최종 순위

순위	팀명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전북	76	22	10	6	71	37
2	울산	74	21	11	6	64	41
3	대구	55	15	10	13	41	48
4	제주	54	13	15	10	52	44
5	수원FC	51	14	9	15	53	57
6	수원	46	12	10	16	42	50
7	서울	47	12	11	15	46	46
8	인천	47	12	11	15	38	45
9	포항	46	12	10	16	41	45
10	성남	44	11	11	16	34	46
11	강원	43	10	13	15	40	51
12	광주	37	10	7	21	42	54

2021 K리그2 최종 순위

순위	팀명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김천	71	20	11	5	60	34
2	대전	58	18	8	12	53	48
3	안양	62	17	11	9	51	37
4	전남	52	13	14	10	38	33
5	부산	45	12	9	15	46	56
6	경남	43	11	10	15	40	45
7	안산	43	11	10	15	37	49
8	충남아산	41	11	8	17	38	41
9	서울E	37	8	13	15	40	39
10	부천	37	9	10	17	32	53

*순위 및 승점은 정규시즌(K리그1 38라운드, K리그2 36라운드 및 PO결과)을 기준으로 함





STORY OF THE 2021 SEASON

*이 장의 전적 및 기록은 해당 기간 안에 치러진 경기 한정이며, 순연 경기 일정에 따라 포함/비포함될 수 있음

제주 주요 데이터(1R~11R)

1,085

획득 누계 수치가 1,085개로 K리그1 1위였다. 공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움직임이 압도적이었다.

248

인터셉트 누계 248개로 K리그1 1위였다. 탄탄한 압박 체계의 힘.

169

파울 누계 169개로 역시 동기간 K리그1 1위였다. 중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

나무를 보면 숲을 안다. 한 팀 한 팀이 모여 K리그의 색깔을 완성한다. 데이터로 보는 세계도 다르지 않다. 돌풍과 파란, 위기와 도전, 추락과 반등의 사연들이 데이터와 촘촘히 엮였다. 숫자로 돌아보는 2021시즌 K리그 이야기.

제주 | 탄탄한 압박과 조직력으로 승점 쌓기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 | OCT | NOV | DEC

승격팀 제주의 응집력이 돋보였다. K리그1으로 복귀한 제주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K리그2 우승 멤버들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은퇴를 선언한 정조국 외에는 주전급 대부분이 팀에 남았다. 곧 제주의 수비 조직이 견재하다는 의미였다. 다소 안정적이고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나선 시즌 초반, 제주가 승점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제주는 1라운드 로빈 11경기 동안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다(4승6무1패). 제주는 3-4-3 대형을 기반으로 타이탄 압박 축구를 펼쳤다.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강하게 누르는 형태였다. 모든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며 동시에 팀으로서도 매우 잘 짜여진 압박 체계를 선보였다. 중원을 지배하면서 결국 승점을 확보

하는 전략이었다. 수비시에는 5-2-3에 가까운 대형을 형성했다. 앞선 '2-3'의 선수들은 중앙으로 크게 밀집해 상대의 중앙 패스 옵션을 제한했다. 양 윙백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안정적인 압박 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 자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센터백의 움직임이다. 좌우 센터백인 김오규와 정운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운의 경우 왼쪽 센터백이지만 공격시 오버래핑까지 시도하며 측면 공격을 직접 시도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수비가 이뤄지면서 공격에도 힘이 붙었다. 스트라이커 주민규가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직접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팀의 골에 관여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제주는 11라운드 기준 3위로 올라섰다. 사실상 초반에 쌓아놓은 승점과 자신감이 시즌 내내 유효했다. 승격팀의 파란을 예고한 시기였다.

인천 | 불안한 수비라인... 이번에도 슬로우 스타터?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 | OCT | NOV | DEC

가을마다 '생존 전설'을 만들어내는 인천이지만, 이번 시즌을 앞둔 각오는 달랐다. 극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여유있는 레이스로 가을을 맞이하겠다는 의지였다. 가장 먼저 오반석, 김광석, 오재석 등 베테랑 수비수들을 완전 이적 혹은 자유 계약 형태로 영입한 데서 안정감을 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시절 조성한 감독과 사제관계였던 공격수 김현도 불렀고, 지난 시즌 임대 복귀했던 아길라르도 완전 이적했다. 국내에서 검증된 네게바까지 합류했다. 그러나 시즌 초반 행보는 갈지(之)자였다. 백스리와 백포를 오가는 형태는 오히려 수비 조직력에서 불안을 야기했다. 수비수 델브리지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등 여러 전술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1라운드 로빈 11경기 동안 전적은 3승1무7패. 무실점은 단 한 경기에 불과하다. 전북전 0-5 패, 제주전 0-3 패 등 수비 조직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 인천이 수비에 문제를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원활한 압박 혹은 커버링에 관한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후방에서의 패스미스가 잦았다. 이 때문에 볼을 탈취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도권을 내주면 조금해진다. 결과를 챙기지 못하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더 불안해 보이는 초반이었다. 그러나 위안이라면 두 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는 점이다. 인천은 지난 시즌 16경기 만에 처음 승리했다. 거의 매 시즌 초반 첫 승 신고가 늦어지면서 가나간 부진을 겪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나마 나아진 점이었다.

인천 주요 데이터(1R~10R)

-11

인천의 득실차. 9골을 넣고(9위) 20실점을 허용했다(최다실점 1위).

27

이 기간 인천의 슈팅 숫자는 97개로 K리그1 11위에 해당한다. 유효슈팅은 27개로 꼴찌였다.

3,100

패스 지표 역시 최하위권이다. 동기간 패스는 3,100개(11위)였으며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는 1,858개(12위)에 불과했다.

802

공 소유권을 확보하는 획득 지표에서도 11위로 처졌다.

대구 | 세징야 & 에드가 날다... 12경기 무패 행진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 | OCT | NOV | DEC

대구는 10라운드 서울전(4/17)부터 22라운드 포항전(8/1)까지 6연승 포함 12경기 연속 무패(9승3무)를 기록했다. 에드가와 세징야가 시너지를 내기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서울전에서 시즌 첫 골을 넣은 에드가는 기세를 몰아 4경기 연속골을 터트렸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서울전에서 복귀한 세징야도 명불허전 활약으로 에드가와 팀의 상승세를 도왔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 대구의 강점은 수비에 있었다. 백스리 기반의 전술 콘셉트가 보다 견고해지면서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홍정운, 김우석, 김재우, 정태욱이 지키는 센터백 라인 역시 매우 견고했다.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팀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전반적으로 라인업이 고정되면서 경기력에서 균형이 생겼다.

대구 주요 데이터(10R~22R)

17

이 기간 대구의 득점 수치. K리그1 3위에 해당한다.

87

PA내에서 시도한 슈팅 수(3위). 슈팅 누계는 131위(7위)로 평범한 수준이지만 박스 안에서는 적극적이었다.

84

동기간 키패스 누계(5위). 총 패스 숫자는 3,648개(12위)였지만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효율성이 높았다.

60

크로스 누계 수치는 K리그1 4위 수준이었다.



대구의 핵심 플랜은 3-4-3 기반의 수비 대형을 통해 중원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후방 숫자를 확보할 수 있다. 상대 공격을 틀어막고 역습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공격시에는 최소한의 공격만 시도하면서 효율성을 추구했다. 중원에서는 세징야가 공격을 주도했고, 측면에서는 윙백이 빠른 오버래핑에 나서거나 에드가의 높이를 통해 보다 위협적인 크로스를 전개했다.

대구는 8월에 위기를 맞는다. 정태욱, 김재우, 정승원 등 수비 주축 멤버들이 올림픽대표팀에 차출되고 센터백 쪽에서 부상 선수가 많아지면서 수비 선수층이 얇어지고 무더위에 체력전이 이어지면서 8월에 큰 부진을 겪었다.

전북 | 디펜딩 챔피언이 흔들린다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T | OCT | NOV | DEC

프로리그에서의 패배는 새삼스럽지 않다. 연속 패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팀이 전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리그 내 가장 화려한 스쿼드를 구축한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1라운드부터 18라운드까지 6경기 연속 무승(3무3패)의 부진에 빠졌다. 시즌 초반부터 선두를 달리던 전북이지만 5월 한 달 간 1승도 챙기지 못해 2위권에 바짝 추격 당하는 상황이 됐다. 무승 기록에는 리그 3연패도 포함되어 있다. 전북이 3연패까지 물린 것은 8년 만이었다. 18라운드 후에는 2위 울산과 승점차가 1점으로 좁혀졌다.

전북의 문제는 중원이었다. 공격시 미드필더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공간을 노출하고, 상대의 빠른 역습에 실점을 허용했다. 미드필더 진영에서 이 공간을 커버할 만큼의 에너지를 갖추지 못했다. 김상식 감독은 17R 울산전을 앞두고 "미드필드에 파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볼을 예쁘게 차려는 선수만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력에서는 나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 부족했다.

전북 주요 데이터(11R~18R)

5

이 기간 전북의 골 수(9위). 화려한 팀에 빈약한 결정력.

57

슈팅 숫자도 57개(10위)에 불과했다. 그 중 23개(8위)가 유효슈팅이었다.

529

수비 지표 역시 대부분 하락세였다. 획득 누계(529개)는 K리그1 8위 수준이었고, 태클(22개, 9위)과 지상 경합(248개, 10위) 역시 하위에 머물렀다.

수원 주요 데이터(10R~19R)

20

수원이 넣은 골 수. K리그1 1위에 해당한다. 반면 슈팅 누계는 87개(9위)로 득점 시도가 많은 편은 아니었다.

455

공격진영에서의 패스 수(10위). 총 패스 숫자도 4,332개(7위)로 평범한 수준이었다.

58

수비 지표에서는 적극성이 돋보인다. 태클 누계(58개)와 지상 경합 누계(450개)에서 각각 리그 1위였다.

서울 주요 데이터(7R~19R)

9

이 시기 서울의 득점 수. K리그1 최하위였다. 슈팅 누계(119개, 11위), 유효슈팅 누계(34개, 12위) 모두 바닥권이었다.

67

패스 누계 숫자는 6,074개(6위)였지만 키패스는 67개(12위)였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이 부족했다.

37

동기간 크로스 숫자. 역시 최하위였다.



수원 | 이기제+매탄소년단 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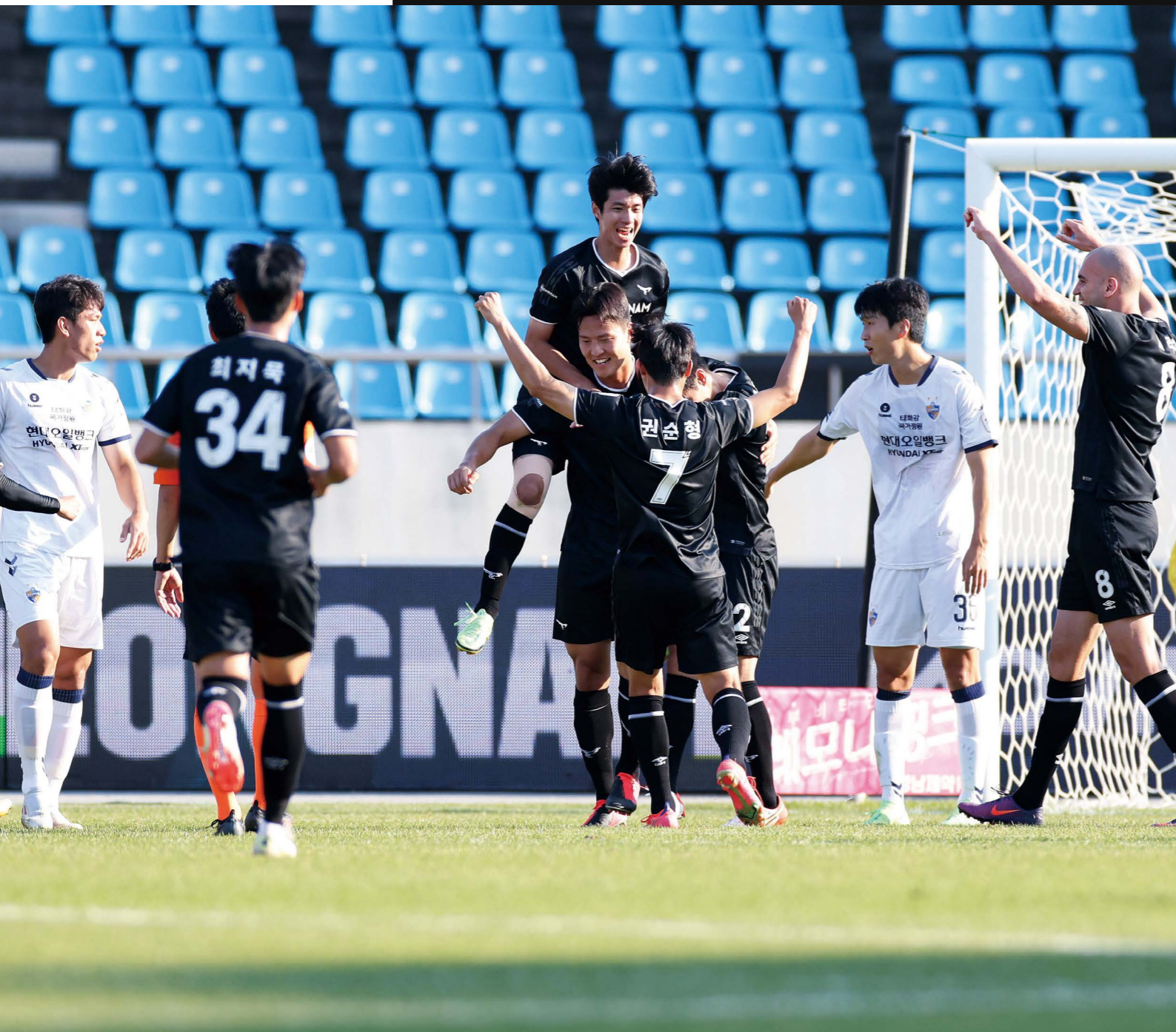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T | OCT | NOV | DEC

비슷한 시기 전북과 희비쌍곡선이 교차했던 팀은 수원이다. 수원은 전반기 내내 5-3-2 시스템을 기반으로 호성적을 거뒀다. 수비시에는 중앙에서 세 명의 미드필더가 넓은 폭으로 좌우 진영을 모두 커버했다. 덕분에 백파이브 라인이 안정적으로 후방을 지킬 수 있었다. 공격시에는 좌우 미드필더가 전진해 전방에 4-5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형태였다. 좌우 미드필더는 기동력을 앞세워 상대 수비 진영에 순간적으로 벌어진 빈 공간을 빠르게 공략했다. 그 외 이기제의 키크력을 기반으로 한 세트피스, 정상빈의 스피드, 김건희의 개인 능력이 골고루 빛났다. 전반적으로 수원 삼성의 '간결함'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시기였다. 득점 기회 자체는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의 피니시와 견고한 수비력이 호성적으로 이어진 시기였다.

서울 |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T | OCT | NOV | DEC

한편 서울은 6R 수원전 이후 19R까지 극도의 부진에 빠졌다. 7R부터 5연패 포함 12경기 연속 무승(5무7패)으로 리그 최하위권까지 추락했다. 이 시기 서울이 겪은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전문 스트라이커의 부재다. 시즌 초반에는 기성용과 팔로세비치가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로 기성용의 중거리 득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곧 한계를 보였다. 전문 스트라이커 부재는 결정력의 문제였다. 득점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중원 기동력 문제였다. 오스마르, 기성용, 팔로세비치 등이 기동력에 약점을 보이면서 중원 공간을 계속 노출하기 시작했다. 박진섭 감독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전술을 시도했다. 백스리를 혼용하거나 조영욱, 신재원, 정한인, 홍준호 등 다양한 선수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배치했다. 그러나 모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성남 | 안정에서 득점으로...
코로나19 극복기**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I | OCT | NOV | DEC

성남은 코로나 이슈로 일정이 꼬인 대표적인 팀이다. 순연 경기를 몰아서 치르는 통에 8월 한 달 동안 8경기를 소화해야 했다. 일정만 놓고 보면 8월 둘째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 주중 경기를 치렀다. 전반기(4~6월) 성적도 좋지 않았던 데다 8월의 강행군은 부진의 핑계가 될 수 있었다.

역설적으로 성남은 이 시기(19R~33R) 경기력에 안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비수 권경원의 임대 합류로 성

**9월 전후
성남 주요 지표
비교
(평균 수치)**

	9월 전(2/27~9/12)	▶	9월 후(9/13~12/5)
득점	0.79(12위)	▶	1.2(9위)
전방패스	121.34(9위)	▶	149.2(8위)
공격진영패스	53.31(10위)	▶	73(8위)
인터셉트	15.2(12위)	▶	20.5(6위)
획득	78.6(7위)	▶	101.2(3위)

남의 수비 조직력이 크게 안정화 됐다 때문이다. 23R 포함전에서 무실점 승리(1-0)를 거뒀다. 무실점 승리는 4월 14일 부산전 이후 10경기 만이었다. 김남일 감독은 “수비부터 공격까지 본인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선수”라며 권경원의 공을 인정했다.

9, 10월 사이에는 경기력이 크게 올랐다. 득점력 개선이 이뤄졌다. 이 시기 치른 8경기 중 7경기에서 모두 골을 뽑아냈다. 세트피스 능력도 좋아졌다. 동기간 기록한 9골 중 자그마치 6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요컨대 세트피스를 통해 득점력이 상승하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됐다. 최지묵, 박수일, 마상훈 등 여러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물리치에 의존했던 기존 공격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수원FC | 리그 판도를 바꾼 돌풍의 힘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I | OCT | NOV | DEC

후반기 들어 가장 큰 반등을 맞은 팀은 수원FC였다. 시작은 제주전(14R)을 기점으로 백포에서 완벽한 백스

리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시즌 초반 수원FC는 극심한 수비 문제에 시달리던 팀이었다. 백스리 카드를 꺼내기 전 13경기 동안 무려 22실점을 기록했다(해당 기간 실점 1위).

시스템 전환으로 얻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일단 수비 조직력이 개선됐다. 최후방 숫자를 하나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때문이다. 동시에 정동호, 김상원과 같은 원백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중원에 많은 선수를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3-4-1-2)을 확립할 수 있다. 수원FC 중원에는 뛰어난 자원들이 많다. 3MF 자리에는 박주호와 이영재, 무리 로가 자리한다. 2선의 무리 로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팀의 연결 고리를 책임진다. 무리 로가 2선에 들어오고, 팀이 투톱 대형으로 전환하면서 최전방의 라스가 상대 수비의 부담을 덜고 활약하기 시작했다.

라스의 경기력이 절정에 달했을 즈음 센터백 라인에도 잭슨과 락운호가 합류했다. 안정적인 수비 진영을 갖추는데 성공했다. 퍼즐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수원FC 주요 데이터
(14R~27R)**

26 수원FC의 득점 기록. 이 시기 리그 1위에 해당한다.

180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했다. 유효슈팅도 72개(1위)에 달했다.

121 키패스 누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크로스에서도 72개(2위)로 상위에 올랐다.

536 공격뿐 아니라 수비 지표에서도 적극성을 보였다. 차단 누계(536개) 역시 1위다.



서울 주요 데이터(29R~38R)

19

이 시기 서울의 득점 누계. K리그1 2위에 해당한다.

56.8

서울의 평균 점유율(2위). 경기력이 크게 회복됐다.

1,928

동기간 서울의 패스 누계는 6,579개로 리그 2위 수준이었다. 단거리 패스 누계는 2,649개(4위)였고, 전방 패스 누계(1,928개)는 1위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공격진영에서 이뤄진 패스도 누계 1,039개(2위)로 상위였다.

47

태클 누계 역시 리그 5위 수준으로 올라왔다.

서울 | 감독 교체 초강수... 무엇이 달라졌나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I | OCT | NOV | DEC

서울은 9월 사령탑 교체를 통해 반전을 꾀했다. 박진섭 감독이 물러나고 안익수 감독이 부임했다. 직후 경기인 성남전(29R)부터 안익수 감독의 전술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익수 체제의 서울은 백스리 기반 시스템이다. 기성용이 위치한 백스리 위치에 양 윙백이 중앙으로 좁혀 오고, 1선에는 MF 2명이 전진하여 3톱과 5명의 라인을 이루고 있는 형태다. 1선에 5명의 선수를 배치했으므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

3-2-5 대형을 기반으로 한 서울의 전술적 포인트는 2가지다. 첫 번째는 후방에서 패스 능력이 뛰어난 오스마르, 기성용, 이한범을 통해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 미드필드 자리로 좁힌 윙백 윤종규와 이태석이 빌드업에 직접 가담하는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주로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들이며 전방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이다.

수비시에는 5-4-1 대형을 기반으로 한 강한 압박을 전개한다. 적극적인 오프사이드 트랩과 미드필드 라인의 강한 압박 성향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하여 상대 공격을 뒤로 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포항 | 파이널B 추락-ACL 결승행 '희비교차'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I | OCT | NOV | DEC

포항은 후반기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K리그에서는 부진했다. 김기동 감독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골업' 멤버 김륜성과 이호재를 1군에 적응시키고 K3 부산교통공사에서 영입한 박승욱을 주전 윙백으로 안착시키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악재를 완전히 피하지 못했다.

우선 파괴력이 떨어진 최전방에 공백이 생겼다. 공격 자원이 부족했다. 송민규가 전복으로 이적하고 크베시치, 이승모, 팔라시오스 등 주축 선수들도 부상으로 이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상우를 올려 쓰거나 이석규, 김진현 등의 신인 선수들을 세워야 했다. 수비에서도 연쇄 이동이 일어났다. 센터백 그랜트가 윙백을 소화하는 공여책도 나왔다. 타쉬의 경기력은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다. 이번 시즌 내내 포항은 스트라이커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격수의 무게감이 떨어졌다. 미드필더 이승모가 공격수 자리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결정적으로 주전 골키퍼 강현무가 대구전(29R)을 끝으로 부상 이탈했다. 강현무의 공백은 순위 싸움 중인 포항에 치명타였다. 후보GK 조성훈과 이준이 출전했으나 두 선수 모두 출전 직후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팀 실점의 빌미가 되고 말았다.

강원 | 부진의 끝, 감독 교체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I | OCT | NOV | DEC

강원은 포항전(35R) 0-4 패배 후 김병수 감독과 결별했다. 하반기 내내 이어진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다. 강원은 팀 안팎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겪는데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까지 찾아지며 시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매우 좋지 않았다. 강원은 지난 시즌에 비해 수비시의 압박 빈도를 크게 줄였다. 밑으로 내려서 공간을 지키는 수비를 추구했다. 그렇지만 작년 대비 수비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김병수 감독의 전술 색채는 강하게 남았지만, 끝내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

강원 주요 데이터(1R~33R)

37

33라운드까지 강원이 넣은 골 수. 경기당 1골을 겨우 넘는 정도였다.

118

유효슈팅 누계는 118개로 리그 9위 수준이었다. PA 내 슈팅 누계는 218개(8위)였다.

18,569

강원의 패스는 리그 4위에 해당하는 숫자로, 많은 편이다. '병수불'의 잔향이다.

포항 주요 데이터(29R~34R)

7

이 시기 포항이 넣은 골 수. 리그 10위에 해당한다.

116

포항의 인터셉트 누계는 116개로, 9위 수준이었다. 태클 누계(21개, 11위), 차단 누계(248개, 8위)에서 적극성이 약화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7

이 시기를 포함해 시즌 통틀어 포항이 수비 실책으로 내준 골 수. 실책에 따른 실점 수치로는 리그 1위였다.



광주 주요 데이터(시즌 전체)

4.11

경기당 평균 유효슈팅 수(4위). 광주의 경기당 평균 슈팅수는 12.11개(5위)인데, 이 중 1/3이 골대로 향한 셈이다.

10,987

이번 시즌 총 패스는 10,987개로 12위에 해당하는 숫자다. 스피드 좋은 자원들을 적극 활용한 팀 색깔을 고려하면 패스의 효율성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

730

클리어링 누계는 730개로 리그 1위였다. 경기당 평균 수치 역시 1위(19.73)였다. 그만큼 실점 위기가 있었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광주 | 결정력 부족에 2부리그 강등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 | OCT | NOV | DEC

37라운드 성남전을 끝으로 강등이 확정됐다. 이번 시즌 38경기에서 승점 37점을 획득한 광주는 2017년 수원FC 다음으로 가장 높은 승점을 쌓은 강등팀이 됐다. 경기력에서 광주는 탄탄한 팀이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역습 축구를 추구하며 K리그1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였다. 수비시에는 4-4-2의 2톱 선수들이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 10명의 지역 수비를 형성했다. 타이트한 간격을 통해 상대의 공격 공간을 제한하는 전술이었다.

역습시에는 투톱이 깊은 지역까지 내려왔다. 이들을 연결고리 삼아 발 빠른 측면 미드필더들의 침투가 이어졌다. 투톱 자리에 김종우, 이희균, 헤이스 등 연계플레이가 가능한 자원들이 위치했으며, 측면에는 김주공, 엄원상, 엄지성 등 발 빠른 선수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전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방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따라주지 못했다. 수비에서도 문제가 있었



다. 센터백들은 종종 집중력을 잃어 상대 선수를 놓쳤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간격이 벌어져 라인 사이 지역으로의 공격 전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잦았다.

울산 | 챔피언이 되지 못한 점유율의 강자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 | OCT | NOV | DEC

시즌 막바지 울산에겐 치명적인 3번의 패배가 있었다. 챔피언스리그 4강(10/20)에서 포항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고, FA컵 4강(10/27)에서 전남에 1-2로 발목을 잡혔다. K리그에서는 35R(11/6) 전북전에서 2-3으로 무너졌다. 트레블을 가시권에 두고 있던 울산은 2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결정적 승부처에서 모두 패하며 결국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시즌 울산은 점유 축구라는 뚜렷한 색깔을 보였다. 중원에는 윤빛가람, 이청용, 원두재, 김성준 등 기술 좋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볼을 점유하고 패스 길을 열어주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는 형태였다. 전방에서는 이동준, 이동경, 오세훈, 김태환 등 공간 침투에 뛰어난 선수들이 상대 수비의 빈 틈을 파고들어 득점을 노렸다.

반면 수비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MF라인 쪽에서의 기동력이 좋지 않았던 탓에, 상대 미드필더에게 공간을 내주고 득점 찬스를 허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울산 주요 데이터(시즌 전체)

23

울산의 득실차. 64골(2위)을 넣고 41실점(11위)만 허용했다.

4.97

경기당 평균 유효슈팅 숫자. 리그 1위에 해당한다. 울산은 경기당 평균 13.68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역시 리그 1위였다.

18,940

이번 시즌 울산의 패스 누계는 18,940개로 리그 1위였다. 경기당 평균 498.42개(1위)의 패스가 나왔다.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는 경기당 평균 164.18개(1위),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는 경기당 평균 91.26개(1위)였다. 공격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권을 가진 팀이었다.

전북 주요 데이터(시즌 전체)

득점 71개 (1위)

실점 37개 (12위)

슈팅 누계 417개 (7위)
평균 11.27개

유효 슈팅 누계 176개 (2위)
평균 4.76개

PA내 슈팅 누계 278개 (2위)
평균 7.51개

패스 누계 16,383개 (3위)
평균 442.78개

전방 패스 누계 5,990개 (2위)
평균 161.89개

공격진영 패스 누계 3,210개 (2위)
평균 86.76개

테클 누계 138개 (10위)
평균 3.73개

경합(지상) 누계 1,483개 (3위)
평균 40.08개 (2위)

인터셉트 누계 625개 (12위)
평균 16.89개 (10위)

차단 누계 1,417개 (11위)
평균 38.3개 (10위)



전북 | K리그1 5연패 위업 달성

FEB | MAR | APR | MAY | JUN | JUL | AUG | SEP | OCT | NOV | DEC

전반기 혼란을 겪은 전북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기점으로 점차 경기력이 살아났다. 중원 밸런스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다. 백승호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크게 발전했으며, 전반적인 간격 유지가 보다 원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보강도 잘 이뤄진 편이었다. 김진수를 통해 고민 거리였던 왼쪽 윙백 자리를 보완했다. 원어로는 송민규와 문선민이 합류했다. 여름을 기점으로 구스타보의 경기력과 컨디션도 크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구스타보가 리그 정상급의 활약을 유지하면서 주전 공격수 자리는 그의 몫이 됐다.

10월을 기점으로 4-3-3으로의 전술 변화를 가져간 것 역시 주목할 만했다. 수비시 기존의 4-4-2가 아닌, 1선에 보다 많은 숫자를 둔 4-3-3 대형을 형성함으로써 상대의 볼 소유권을 보다 강하게 제한했다. 공격시에는 4-3-3의 좌우 미드필더가 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원어가 넓게 벌려서 상대 수비 라인을 놀려주고, 좌우 미드필더가 높은 위치에서 움직여 상대 수비 사이 지역을 공략했다.

이번 시즌 전북의 우승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극복'이다. 시즌 초-중반 고비가 있었지만 주요 선수들(백승호-구스타보)의 기량 향상과 여름의 전력 보강, 그리고 전술 변화까지 이뤄내면서 끝내 우승을 차지했다.

왕조의 후계자가 살아가는 법

전북현대 김상식 감독



K리그 최다 9회 우승, 그리고 최초의 5연패. ‘왕조’라 불려도 손색없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북현대가 또 다시 기록을 썼다. 울산현대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끝내 전북에 우승을 안긴 이는 왕조의 정통 후계자, 김상식 감독이었다.

변하지 않는 ‘형’으로서 전북을 통솔하라

“감독이라는 자리, 해보니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선수 때야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됐는데. 그래도 ‘저 형, 감독 되더니 사람이 변했다’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선수, 코치, 그리고 감독으로 전북에서 보낸 시간만 13년. 누구보다 전북을 잘 아는 감독인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선수들이었다. 그래서 김상식 감독은 호화 군단으로 불리는 전북을 통솔하는 첫 걸음으로, 폭 넓은 선수 기용을 선택했다.

외부에서 부임한 감독이 아닌, 내부 승격으로 지휘봉을 잡은 감독이 갖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전북이라는 팀은 항상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다. 당연히 5연패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동시에 가장 걱정할 부분 중 하나가 선수 기용이었다. 그래서 초반부터 많은 선수들을 돌아가며 기용하고, 100% 베스트 멤버가 아니더라도 95%의 힘으로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야 했다.”

구스타보, 일류첸코만 놓고 봐도 전혀 다른 유형의 스트라이커다. 모두 내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선발 출전 욕심이 있는 선수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일이었을 텐데.

“힘든 부분이었다. 일류첸코가 잘하면 구스타보가 눈에 밝히고, 또 구스타보가 나가면 일류첸코가 눈에 밝히고. 그러니 성적을 생각해서 무조건 컨디션 좋은 선수들만 내보낼 수는 없었다. 시즌 초반 백스리를 활용하거나 일류첸코-구스타보 투톱 등 여러 로테이션을 사용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선수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먼저였다. 성적은 점차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선수들을 활용하고 골로루 쓰기 위한 전술적인 고민이 컸다.”

팀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는 부분도 까다로운 과제였을 것 같은데.

“전북은 ‘탁공’의 팀이다. 팬들에게 평균 2골은 넣고 싶다는 공약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전북은 38경기 71골로 최다 득점 1위다) 1년 동안 팀을 이끌면서 팬들의 기대와 우려가 컸다는 것을 안다. 팬들을 즐겁게 만들려면 골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음 시즌에는 그런 부분을 더 준비하려고 한다.”

신뢰와 변화로 변수를 극복하라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더 체력적인 부분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가져가면서 후반기에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믿었다.” 전북은 시즌 첫 10경기 동안 무패(8승2무)를 달리다가, 11라운드 울산전 무승부 이후 6월까지 부진의 시기를 겪었다.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김상식 감독은 두려움 없이 변화를 택했고, 선수들에 대한 신뢰로 굳건히 버텼다.

11R 울산전(4/21) 무승부 이후 6월까지 긴 부진에 빠졌다. 중원에서 밸런스를 잃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잘하고 있다가 수원, 울산, 대구한테 3연패를 당하고 FA컵에서 양주시민축구단에 또 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전술, 체력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럴 때는 뭘 해도 잘 안 되더라. 흐름과 분위기가 중요한데, 챔피언스리그 다녀오면서 자신감도 찾고 선수들 컨디션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수원FC에 발목을 잡히긴 했지만, 문선민 전역과 송민규 영입 등 후반기 반전 요소에 기대를 걸었다.”

전북의 올 시즌 키워드 중 하나는 ‘측면’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인상적인 측면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많았는데.

“비대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움을 올리면 김진수는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서, 수비시 백스리를 유지하고 공격할 때는 쿠니모토, 바로우 같은 선수들의 활동량을 믿고 가면서 역습을 동시에 대비했다. 백승호 같은 선수들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서주고 백스리를 형성하면서 수비시 최소 4명 정도 남아 있도록 했다.”

수비시 특히 미드필드 라인 쪽에서 커버플레이가 뛰어났다. 중원에서 수비라인으로 이어지는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두터웠을 것 같다.

“상대가 백스리, 백파이프 서는 팀들이 많으니까, 백포로 대응할 때 워 포워드들이 지역적으로 설 건지, 아니면 1대1 대인방어를 할 건지 고민이 많았다. 순간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선수들이 대응을 잘 해줬다. 최영준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미드필드에서 그런 싸움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후반기에는 백승호의 수비적인 기량이 올라오면서 상대에 맞는 움직임도 잘 해줬고, 1대1 대응마크나 2차 저지선 역할, 공중볼 경합,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면서 디테일을 만들어 나갔다.”

후반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3-3으로의 변화였다. 올 시즌 구상했던 전술 중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



우승은 전북의 DNA다

“아무래도 4-3-3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선수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전북의 기본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4-1-4-1을 주로 썼다. 그러다 파이널 라운드 들어오기 전에 코치, 분석관들과 고민한 끝에 결정해서 변화를 줬다. 다른 시도를 해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잘 해낸다고 생각했고, 좀 더 빨리 변화를 줬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올 시즌 전술적으로 확신을 준 부분이자, 다음 시즌에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됐다.”

우승 DNA, 여전히 계승 중

“우승 DNA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그래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쌓이고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바로 전북현대라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강력한 라이벌 울산의 맹공으로,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쉽지 않은 시즌이었다. 올 시즌 울산전 1승2무2패(챔피언스리그 포함)로 열세였지만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고비에서 전북은 울산을 꺾고 우승 트로피를 낚아챘다. 김상식 감독은 그걸 ‘자존심에서 찾았고, 사람들은 ‘우승 DNA’라고 불렀다.

울산전에서 줄곧 열세였다가, 35R 마지막 대결에서 ‘승점 6점짜리’라고 불리는 승리를 거뒀다. 열세였던 이유와, 마지막 대결 승리의 비결

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전력이 만만치 않다. 우리와 거의 전력 차이가 나지 않는 팀이다. 한 가지 이유를 꼽기 보다는 아마 미드필드에서 좀 밀렸지 않나 싶다. 미드필드에서의 활동량, 볼 소유, 수비, 리바운드 싸움 등 전체적인 면에서 울산전 때 고전했던 것 같다. 마지막 경기에선 일류첸코를 늦게 투입했다. 2-2 상황이었지만 미드필더들을 최대한 안 빼고 지키다가 투입하면 한 골은 어떻게든 넣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일류첸코가 멋지게 골을 넣어줬다. 사실 전술적으로 뭔가 특별한 걸 했다고 보다는 ‘한 번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 게 컸다. 선수들의 자존심, 전북현대의 자존심을 걸고.”

전북의 우승 DNA를 확인시켜주는 경기였다는 평도 있다. 선수, 코치, 감독으로서 경험하고 확인한 전북의 우승 DNA는?

“이 경기는 잡아야 한다. ‘우승하려면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서야 한다.’ ‘상대보다 얼마나 더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알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쌓여서 노후가 되고, 힘이 되고, 경험이 돼 우승 DNA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확실한 건,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려움을 수목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 선수들이 스스로에게 갖는 신뢰, 그게 바로 전북의 우승 DNA다.”





‘행복 축구’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김천상무 김태완 감독

지난해 상무는 팀 역대 1부리그 최고 성적(4위)을 기록했다. 그리고 김천으로 연고지 옮겨 재창단한 올해, 2부리그에서 우승했다. 김태완 감독은 ‘선수 덕’이라는 말 뒤에 숨는다. 이제 그 이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다.

결단은 빠르게, 대처는 유연하게

2021시즌 김천상무는 9R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리그 5패 중 4차례가 1R 로빈에서 나왔다. 이후 27경기에서 단 1패했다. 김태완 감독은 빠르게 대처했다. 1R 무승부를 기록한 뒤, 2R마저 패하자 플랜A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시즌 개막 일주일여 만이었다. 상무의 다양성은 김태완 감독의 유연한 대처에 기인한다. 그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수정”과 “보완”이다.

시즌 초 백스리를 쓰며 “동계 훈련 때도 준비하지 않았다. 급하게 만든 전술”이라 했다. 결과적으로 궁여지책이 주효했다.

“동계 훈련에서 준비한 건 4-4-2였다. 이근호, 조규성, 박동진, 오세훈, 오현규까지 포워드가 많았기 때문에 투톱

으로 운영하려 했다. 그런데 안산을 상대하며 우리가 준비했던 플랜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양 측면 미드필더들이 원포워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미드필더 역할도 해야 하는데, 후자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다. 수비도 문제였다. 상대가 밀집해서 수비하면 좌우 측면으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런데 잘 안됐다. 침투하는 숫자들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상대 압박에 고전했다. 백스리로 바꾼 건 우리가 미리 공간을 잡기 위해서였다. 오히려 역습을 노리는 형태가 낫겠다는 판단에 서다.

수비 조직력부터 갖추는 게 중요했다. 그렇지만 좌우 센터백들에게는 미드필더나 사이드백처럼 공격 가담해야 할 때는 하라는 주문을 했다. 미드필더들에게는 센터백이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볼을 받아 가지 말라고 했다. 굉장히 싫어하는 플레이다. 요구한 플레이는 빈

공간을 찾는 것이었는데, 잘 수행했다. 공격 시에 넓은 공간을 수비 전환했을 때 빨리 좁혀서 중앙을 안정감 있게 막으라고 했다. 잘 들어맞았던 것 같다.”

시즌 초 경기력이 들쭉날쭉했다. 2부리그로 무대를 옮긴데 따른 영향이 있었을까?

“2부 뚜껑을 열어 보니 맞대응하는 운영이었다. 압박도 강하게 가해 와서 적잖이 당황했다. 또 2부는 보다 격렬하다. 공을 탈취하려고 할 때는 ‘들이뎐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다. 선수들이 다치기도 했다. 문선민 같은 경우는 1R를 치르고 비골이 골절되는 바람에 전역할 때까지 제대로 못 썼다. 2부의 적극성에 적응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 어떻게 역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고민 끝에 찾은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나?

“경기력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전반전은 많이 뛰고 압박도 좋은데, 후반 중반이 넘어 서면 압박이 느슨해지는 걸 느꼈다. 그럴 때 오현규와 같은 기동력 있는 선수들을 투입해서 상대 뒷공간을 노렸다. 승부를 보는 시점을 늦춘 것이다. 또 끊임없이 미드필더들에게 강한 압박을 요구했는데 이 점도 주효했다. 2부 팀은 아무래도 롱볼이 많다. 높이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상대가 풀어 나오려고 하면 미드필더들 사이 약속된 플레이로 막게 했다. 그때 필요한 개인 능력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통제하라, 그리고 지배하라

김천상무는 10R부터 서서히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백포로 재진환하고 자유롭게 백스리를 오가며 진화해나갔다. 김태완 감독은 “공격적인 수비를 하면서 경기를 주도했다”고 설명한다. 실체가 없는 말이 아니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상무는 공격 지역에서의 획득과 1위(84.72), 공격 지역에서의 인터셉트 1위(2.28), 공격 지역에서의 태클 2위(1.31)를 기록했다. 상대 변수를 통제하는 동시에 여러 공격 루트를 마련한 결과, 리그 최다 득점을 올리고 최소 실점 2위를 했다. 우승과 다이렉트 승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다시 백포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인가?

“3-4-3을 쓰게 되면 가운데 미드필더가 수적으로 밀린다. 3-5-2를 쓰자니 좌우 측면 왕백의 역할과 포워드들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승현, 우주성을 믿고 4-1-4-1 또는 4-3-3 형태로 바꿨다. 원톱을 두면서 원포워드들이 좌우 측면을 적극 활용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미드필드부터 우위를 보이면서 경기를 주도하게 되었다. 또 좌우 측면에서 상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비도 좋아지게 되었다.”

지속적으로 미드필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올 시즌 상무는 미드필더 라인 쪽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공격을 밀어내는 형국이었다.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제대로 해줄 선수가 있으면 경기 운영이 수월해지는 게 사실이다. 수비시에는 포백과 함께 5명에서 지킬 수 있다. 공격시 가담하는 인원은 5명 정도, 사이드백까지 하면 6명까지도 되니까 득점 상황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말이다. 4-4-2를 쓸 땐 박용우가 부상으로 빠진 터라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었다. 정현철이 자리를 잡아주고 문지환도 합류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다.”

수정과 보완이 끊임없이 일어날수록 ‘약속된 플레

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 같다.

“초반 고전한 이유 중 하나도 센터백들이 어디까지 나가서 수비를 해야 할지와 같은 약속된 플레이가 명확하게 공유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미팅의 상당 시간을 내부 약속에 할애했다. 박동진이 원톱으로 나서기 시작할 시점부터 예를 들면, 동진이에게는 좌우로 너무 크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좌우 측면으로 볼이 나갔을 땐 포워드가 방향 설정을 해주고 나갈지, 미드필더가 만들어줄지 상황에 따라 세부 룰을 정했다. 수비시에는 전환만 안되게끔 한 방향으로 몰기로 했다. 상대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을 주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끊어서 공격으로 나가는 것을 연습했다. 전방 압박은 P2(중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P1(상대 골문) 지역부터 했는데, 올해는 자리가 안 잡힌 상황에서 막 뛰어나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상대 역시 많이 뛰니까 후반에 승부를 보기로 전략을 세웠다.”

상대 팀들은 상무에게 많은 선택지를 허용한 듯하다. 60골을 넣었고 득점 루트도 매우 다양했다.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없다. 여러 선수들이 고루 골을 넣은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격 상황의 대원칙은 하나다. 파이널 서드까지 공격이 진행되면, 박스 안에서 공을 빼지 말라는 것이다. 걸리면 페널티킥을 얻는 것 아닌가. 공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어렵게 들어간 페널티지역에서 공을 빼내 다시 만드는 건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다. 포워드뿐만 아니라 원어에게도 주문은 같다. 파이널 서드에 들어가면 포워드 역할을 하라고 했다. 빈 공간은 사이드백이나 미드필더들이 채우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사실 원래 목표는 70골이었다.”

가장 강한 힘, 자발성

“군대라는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주시는 ‘웍태완’ 김태완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K리그2 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11 수비수 부문에 선정된 정승현의 수상 소감은 시사점이 있다. 김태완 감독 리더십의 근간인 ‘동기부여’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 감독의 멘털 지도는 선수들이 축구를 시작했을 때 느낀 근원적인 즐거움을 끄집어내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즐거움의 형태가 ‘승리’만이 아니었음을 일깨워 준다. 이른바 ‘행복 축구’다. 그 속에서 동기부여된 선수들은 스스로 움직이고 상무는 군 팀의 한계를 극복해낸다. 어쩌면 ‘행복 축구의 완성’이란, 승리나 우승이 아니라 자발성이 발휘되는 때일 수도 있다.

상무는 매 시즌 선수단 물갈이가 큰 폭으로 이뤄진다. 상무에 올 정다면 정말 귀한 선수들이다. 그 귀한 선수

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한다. 모든 선수의 바람은 같다. 축구 잘하고 싶고, 인기 얻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다. 난 그게 채워주고 싶다. ‘전역했을 때 무언가 무기를 하나 더 갖고싶어 나가면 좋지 않겠냐’는 대화를 많이 한다. 의사 전달은 코치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한다. 말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곡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선수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니까 잘 찾아왔다. 승현이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초반 페이스가 안 좋았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

박동진, 조규성, 허용준, 정재희까지 가치의 재발견이었다.

“기본적으로 좋았을 때 품을 찾아주려고 한다. 용준이 같은 경우는 좋았을 때 경기력을 익히 알고 있었다. 다시 발휘하느냐 아니냐는 선수와 지도자의 신뢰 문제 같다. 잘 따라와 줘서 고마운 마음이다. 재희는 시동이 늦게 걸리는 스타일이다. 그런 특성을 알고 지켜보면 믿음에 보답하는 친구다. 동진이는 침착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면담을 많이 했다. 콧방귀나 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코치들이 혼내기도 했다. 기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의욕을 좋은 방향으로 살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규성이는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세워 채워 나가는 선수더라. 웨이트도 열심히 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선수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다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다이나믹한 전술을 구하고 빌드업시 유동적인 중원 대형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이때 미드필더와 원어들의 유기적인 스위칭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오랜 호흡을 맞춘 팀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포메이션은 큰 의미가 없다. 4-2-2이든 4-3-3이든 스위칭이 발생한다. 그때 각각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줄 것인지, 누가 도와줄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건 팀으로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 개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 역할을 각각 해야 하지만,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 받는 게 진짜 조직력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

1년 만에 1부리그 승격을 이뤘다. 다음 시즌 1부리그에서 조직력 있는 상무를 또다시 기대해도 될까?

“레알 상무’란다. 매해 듣는 이야기가 또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있다. 원포워드 포지션이 약한 것 같다. 신병들이 적응할 때까지는 기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다. 곧 그 선수들도 상무만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한식구처럼 플레이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할 것 같다. 하나 확실하게 배운 건, 1부에서 생존하는 것보다 2부에서 우승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이다. 2부로 다시는 내려가고 싶지 않다.”

TEAM OF THE YEAR

K LEAGUE 1

2021시즌 최우수선수(MVP) 경쟁은 뜨거웠다. 감독, 선수, 미디어의 관심이 전북의 K리그 5연패를 이끈 홍정호와 득점 선수를 질주한 주민규(제주)로 갈렸다. 투표 결과 홍정호가 9.53% 앞서 MVP에 선정됐다. 베스트11을 가장 많이 배출한 팀은 울산이었다. 모두 4명이 이름을 올렸다.

24

MVP를 수상한 홍정호(전북)는 중앙 수비수다. K리그에서 중앙수비수가 MVP를 차지한 것은 김주성(1997)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시즌 주간 베스트11에 선정된 횟수는 5회. 수비 지역에서 인터셉트 50회(2회), 횡득 186회(4위), 클리어 93회(9위), 차단 100회(11위) 등 수비 관련 데이터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경기당 평균 평점 6.89.

2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설영우는 프로 데뷔 2년차 신예다. 울산의 왼쪽 풀백으로 올시즌 31경기에 출전해 2득점 3도움을 기록했다. K리그1에서 20경기 이상 출전한 측면 수비수 중 인터셉트(54회) 7위, 수비지역 그라운드 경합 성공률(73.4%) 2위, 중앙지역 그라운드 경합 성공률(65.6%) 2위, 공격지역 그라운드 경합 성공률(58.3%) 1위 등 수비 지표에서 적극성이 돋보였다. 경기당 평균 평점 6.85.

38

이번 시즌 K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선수는 두 명, 조현우(울산)와 김영광(성남)이다. 두 선수 모두 38경기(3,420분)를 풀타임으로 소화했다. 조현우는 15경기 무실점을 기록했고 김영광은 13경기를 실점없이 지켰다. 두 선수 모두 전경기 전 시간 출장상을 수상했다. 조현우와 김영광의 평균 평점은 각각 6.79/6.4 이다



BEST XI

G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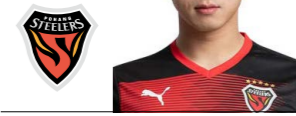


조현우 | 38경기 41실점

울산이 치른 38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다. K리그1 골키퍼 통틀어 최다 무실점(15경기) 기록했다. 캐칭(55회), 펀칭(58회) 등 순발력을 이용한 선방 활약이 돋보였다.

■클린시트 15회 ■선방률 73.4회

DF



강상우 | 37경기 4득점 8도움

주 포지션은 사이드백이지만 측면과 전후방을 가리지 않는 멀티 플레이어로 그라운드를 누빈다. 지난 시즌 K리그 최다도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 시즌에도 4골 8도움으로 맹활약했다.

■키페스 53회 ■크로스 58회

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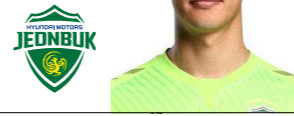


블투이스 | 31경기 3득점

제공권과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울산의 센터백. K리그 3년차가 된 올해 수비라인을 통솔하는 리더십도 보였다. 리그 31경기에 출전해 후방 안정에 힘을 보탰다.

■수비지역 차단 99회 ■태클성공 31회

DF



홍정호 | 36경기 2득점 1도움

감독, 선수, 미디어로부터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리그 최소 실점 전북의 우승을 견인한 수비 리더.

■수비지역 인터셉트 50회 ■클리어 93회

DF



이기제 | 38경기 5득점 5도움

거침없는 질주와 침투, 정교한 원발 크로스, 날카로운 공격 센스를 선보였다. 38경기에 출전해 5골 5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전반기 수원 상승세에 큰 동력으로 존재했다.

■키페스 50회 ■크로스 67회

MF



바코 | 34경기 9득점 4도움

드리블을 이용한 '탈압박'과 침투 플레이, 공격 지원 능력이 뛰어난 울산의 에이스. 9골 3도움을 기록했다. 드리블 성공은 30회로 리그 최고였고, 박스 안 슈팅도 51회(5위)였다.

■드리블 성공 30회 ■그라운드 경합 성공 191회

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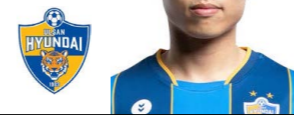


세징야 | 32경기 9득점 7도움

9골 7도움이라는 공격포인트 기록도 준수하지만 수비 지표에 해당하는 그라운드 경합(170회), 공중볼 경합(32회), 인터셉트(27회) 등에서도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의 키맨.

■키페스 84회 ■유효슈팅 31회

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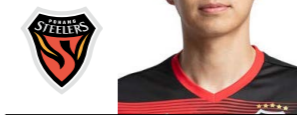


이동준 | 32경기 11득점 4도움

울산 2선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한 저돌적인 플레이로 상대 뒷공간을 침투한다. 올해 자그마치 11차례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울산 팀 내 최다 득점자.

■유효슈팅 25회 ■인터셉트 32회

MF



임상협 | 36경기 11득점 3도움

스피드와 지구력이 좋은 측면 공격수. 수비 가담 후 볼을 탈취해 공격으로 이어가는 속도가 특히 좋다. 이번 시즌 포항 합류 후 몰오른 공격 센스와 결정력을 선보였다. 팀내 최다 공격포인트.

■유효슈팅 25회 ■드리블 성공 24회

FW



라스 | 37경기 18득점 6도움

라스를 빼놓고 수원FC의 도약을 설명할 수 없다. 제공권, 스피드, 파워를 고루 활용한 연계 플레이로 18골 6도움을 기록했다. 울산을 상대로 4골을 몰아넣는 진기록도 남겼다.

■유효슈팅 45회 ■공중볼 경합 298회

FW



주민규 | 34경기 22득점 1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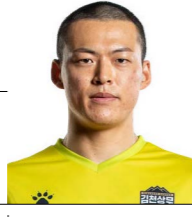
독보적 '피니셔'로 강렬한 시즌을 보냈다. 경기당 평균 0.65골, 두 경기에 한번은 반드시 골을 넣은 셈이다. 왼발(1골), 오른발(8골), 머리(7골)를 고루 활용했다. 나머지 6골은 PK 득점이다.

■유효슈팅 38회 ■키페스 22회

K LEAGUE 2

BEST XI

GK



구성윤 | 18경기 11실점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베스트GK에 선정됐다. 그만큼 압도적인 선방 활약을 펼쳤다. 18경기에서 11실점만 허용했다.

■클린시트 | ■선방률
10회 | **81**%

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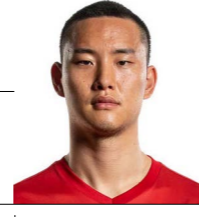


서영재 | 34경기 1득점 4도움

대전의 주전 레프트백. 특히 공격 지원 시 센스가 돋보인다. 하반기에는 수비에서도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팀의 상승세를 지원했다.

■키퍼스 | ■페널티 밖->안 패스 성공
41회 | **73**회

DF



정승현 | 29경기 5득점

김천상무 수비의 핵. 김천이 최소실점 2위의 찐물 수비(무실점 15경기)를 펼치며 조기 우승을 확정하는 데 힘을 보탰다.

■클리어 | ■차단
110회 | **123**회

DF



주현우 | 37경기 8도움

안양의 멀티 플레이어로 공격과 수비를 넘나들며 맹활약했다. 총 출장시간은 3,339분으로 K리그2 전체 3위다.

■공격지역 패스 성공 | ■키퍼스
492회 | **49**회

DF



최준 | 30경기 2득점 4도움

프로 데뷔 2년 만에 베스트11에 선정된 신예. 활동량과 패스 능력으로 부산의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공격 지원에도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

■패스 성공률 | ■키퍼스
72% | **35**회

MF



김경중 | 27경기 7득점 4도움

올시즌 안양 상승세를 이끈 주역. 이번 시즌 7골을 기록했는데, 그가 골을 넣은 7경기에서 안양의 승률이 높았다(5승1무1패).

■유효슈팅 | ■드리블 성공
15회 | **15**회

MF



김현욱 | 35경기 3득점 4도움

전남의 키플레이어. 탄탄한 균형감을 유지한 전남의 중원을 이끌었다. 페널티 밖에서 안으로의 패스 성공 횟수(96회)가 K리그2 선수 중 가장 많다.

■크로스 성공 | ■탈압박
66회 | **15**회

MF



마사 | 15경기 9득점 1도움

32라운드부터 35라운드까지 4경기에서 7골을 몰아쳤다. 골 결정력이 돋보인다. 15개의 유효슈팅으로 9골을 만들어 냈다.

■유효슈팅 대비 득점 | ■패스성공률
0.6회 | **78.5**%

MF



박진섭 | 33경기 5득점 2도움

공격과 수비에서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친 대전의 살림꾼. 상대의 맥을 끊어내는 판단력과 움직임, 대전 공격의 출발점이 된 패스 지원 모두 리그 최고 수준이었다.

■중앙지역 인터셉트 | ■중앙지역 차단
64회 | **190**회

FW



안병준 | 34경기 23득점 4도움

6경기 연속골 2회, 멀티골 3회, 헤트트릭 1회 등 시즌 내내 꾸준히 득점 활약을 펼쳤다. 왼발, 오른발, 머리를 고루 활용하는 '득점 머신'이다.

■유효슈팅 | ■밖스 안 슈팅
53회 | **77**회

FW



조나탄 | 29경기 14득점 1도움

리그 득점 2위의 결정력으로 안양이 창단 후 처음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데 앞장섰다. 제공권 싸움과 동료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로 호평 받았다.

■공중볼 경합 성공 | ■유효슈팅률
236회 | **54.5**%

RESULTS

베스트XI 이렇게 선정했다

2021시즌 K리그 개인상 후보는 각 구단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되었다. 시즌 중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5경기 이상 출장정지 또는 600만원 이상 벌과금 중징계를 받은 선수와 감독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부문	K리그1		득표수		최종점수	
	소속	후보명	감독	선수	미디어	
감독상	수원FC	김도균	1	2	32	18.35
	전북	김상식	6	4	65	47.03
	대구	이병근	1	0	9	5.55
	울산	홍명보	4	6	12	29.07
	계		12	12	118	100
MVP	대구	세정야	1	1	4	6.36
	울산	이동준	1	0	8	5.21
	제주	주민규	4	5	50	39.45
	전북	홍정호	6	6	56	48.98
	계		12	12	118	100
영플레이어상	포항	고영준	2	3	3	13.52
	울산	설영우	3	7	51	42.29
	광주	엄원상	5	0	16	17.92
	수원	정상빈	2	2	48	26.27
	계		12	12	118	100
GK	성남	김영광	2	1	34	19.03
	전북	송병근	1	1	31	15.51
	울산	조현우	8	9	52	60.13
	대구	최영은	1	1	1	5.34
	계		12	12	118	100
DF	포항	강상우	5	4	70	11.56
	포항	권원규	2	1	2	2.04
	울산	김기희	4	4	16	6.36
	제주	김오규	3	3	7	4.34
	울산	김태환	3	4	19	5.99
	수원	민상기	1	2	4	2.21
	울산	불투이스	3	3	55	8.41
	울산	설영우	3	4	32	7.09
	제주	안현범	3	0	18	3.40
	서울	오스마르	2	0	3	1.50
	수원	이기제	5	7	45	11.31
	전북	이용	1	3	50	6.74
	강원	임창우	1	1	1	1.33
	제주	정우재	1	1	6	1.76
	대구	정태욱	1	1	35	4.22
전북	홍정호	10	10	109	21.74	
계		48	48	472	100	
MF	서울	기성용	4	2	15	5.02
	수원	김민우	2	2	0	2.50
	전북	김보경	2	1	34	4.76
	수원	김태환	0	0	3	0.25
	수원FC	무릴로	1	2	15	3.15
	울산	바코	1	8	39	8.93
	대구	세정야	8	6	87	16.12
	포항	신진호	3	6	14	6.81
	광주	엄원상	3	1	7	3.09
	울산	이동경	2	4	54	8.33
	울산	이동준	6	7	86	15.41
	제주	이창민	4	3	24	6.41
	포항	임상협	7	4	25	8.99
	제주	제르소	2	1	3	2.13
	전북	쿠니모토	2	1	35	4.84
전북	한교원	1	0	31	3.25	
계		48	48	472	100	
FW	전북	구스타보	2	4	20	10.89
	서울	나상호	1	0	1	1.42
	수원FC	라스	9	9	79	35.89
	인천	무고사	0	1	1	1.42
	성남	롤리치	0	0	0	0.00
	대구	에드가	0	0	2	0.34
	전북	일류첸코	3	1	20	8.39
	제주	주민규	9	9	113	41.65
	계		24	24	236	100

부문	K리그2		득표수		최종점수	
	소속	후보명	감독	선수	미디어	
감독상	김천	김태환	5	4	69	55.16
	충남아산	박동혁	1	1	4	7.63
	안양	이우형	3	4	20	29.16
	전남	전경준	1	1	5	8.04
	계		10	10	98	100
MVP	전남	김현욱	0	0	1	0.41
	부산	안병준	4	4	68	51.76
	김천	정승현	5	6	27	44.02
	안양	주현우	1	0	2	3.82
	계		10	10	98	100
영플레이어상	충남아산	김인균	5	4	30	39.24
	부산	박정인	3	3	43	35.55
	김천	오현규	1	2	14	14.71
	서울E	이상민	1	1	11	10.49
	계		10	10	98	100
GK	김천	구성윤	6	6	62	61.31
	서울E	김경민	1	0	2	3.82
	전남	김다솔	1	1	15	12.12
	안양	정민기	2	3	19	22.76
	계		10	10	98	100
DF	경남	김동진	2	3	9	4.67
	안양	백동규	4	3	16	6.88
	대전	서영재	2	1	48	7.15
	김천	심상민	3	1	27	5.76
	부천	안태현	3	0	8	3.07
	안산	연제민	2	2	8	3.82
	전남	올렉	2	1	19	4.19
	김천	우주성	1	2	13	3.58
	서울E	이상민	1	2	32	5.52
	대전	이종희	1	1	23	3.85
	전남	장승혁	1	2	16	3.88
	김천	정승현	8	8	83	20.47
	부천	조현택	1	1	3	1.81
	안양	주현우	3	6	54	12.26
	부산	최준	4	6	27	10.26
충남아산	한용수	2	1	6	2.86	
계		40	40	392	100	
MF	김천	고승범	3	2	26	6.40
	안양	김경중	5	5	50	12.60
	충남아산	김인균	2	1	16	3.88
	서울E	김인성	0	2	17	3.23
	부산	김진규	4	4	18	7.84
	전남	김현욱	6	3	36	10.42
	안양	닐손주니어	1	1	30	4.56
	안산	두아르테	1	1	4	1.91
	서울E	레안드로	0	1	12	1.97
	대전	마사	6	5	75	15.90
	대전	박진섭	5	7	41	13.18
	부천	박창준	3	4	29	8.21
	경남	백성동	1	2	12	3.47
	대전	이현식	0	1	11	1.87
	김천	정재희	2	0	7	2.21
김천	허용준	1	1	8	2.32	
계		40	40	392	100	
FW	경남	박동진	1	2	2	4.91
	부산	박정인	0	0	2	0.41
	전남	발로텔리	3	2	4	8.32
	부산	안병준	8	9	96	45.09
	경남	윌리안	1	1	5	4.02
전남	이종호	0	1	9	3.34	
김천	조규성	4	2	26	14.31	
안양	조나탄	3	3	52	19.61	
계		20	20	196	100	

02

2021

**K LEAGUE
TALKING
POINTS**



2021 K리그의 흥미로운 화두 셋

윙백 활용법 · 포지션 변칙 기용 · 코로나19 속 컨디션 관리

2021시즌 K리그에서 두드러진 전술적 특징이 있다. 윙백을 공격의 키로 활용하는 팀들이 늘었다. 수비수인 동시에 플레이메이커였다가 득점원이기도 했던 이들의 활약에 희비가 엇갈린 팀도 많았다. 백스리 기반의 포메이션을 쓰는 팀들이 늘어난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포지션 변칙 기용으로 눈길을 끈 팀들도 있다. 대부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처한 경우지만, 그 덕에 뜻밖의 소득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속에 두 번째 시즌을 치른 만큼 체력 및 경기력 관리도 주요 화두였다. 2021시즌 K리그의 주요 테크니컬 토픽을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본다.



TOPIC #1 윙백, 전술 다양성의 중심에 서다

지난해에 비해 백스리 기반 전술을 활용하는 팀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윙백을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쓰는 팀들도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백스리는 백포에 비해 윙백의 공격 자율성이 높아지는 전술 시스템이다. 수원, 대구, 인천 등 백스리를 활용하던 팀 외에 강원도 2021시즌을 앞두고 백포에서 백스리로 변화했다. 수원FC와 서울은 시즌 중에 백스리로 전환했다. 수원FC는 수비 안정성을 위해, 서울은 감독 교체(박진섭→안익수)에 따른 변화였다. 여기에 K리그2에서 백스리를 활용했던 제주가 승격하면서 K리그의 백스리 기반 팀이 추가됐다.

1) 수원: 측면 플레이메이커 이기제

단연 돋보이는 팀은 수원이다. 수원은 윙백을 측면 플레이메이커처럼 활용한다. 핵심은 왼쪽의 이기제다. 속도와 일대일 돌파 면에서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날카로운 킥력을 지닌 윙백이다. 이기제는 높은 위치를 고집하지 않는다.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이며 전방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수원은 좌우 미드필더들의 기동력이 뛰어난 팀이다. 이기제가 측면에서 볼을 소유하면 보다 많은 공격 옵션을 누릴 수 있다. 좌우 미드필더의 1선 침투가 이뤄질 수도 있고, 김건희나 제리치의 높이를 겨냥한 크로스를 전개할 수도 있다. 역습시에는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움직여 크로스를 올릴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

K리그 윙백 크로스 TOP 5

1	이기제(수원)	255
2	강상우(포항)	247
3	임창우(강원)	167
4	김태환(울산)	165
5	이으뜸(광주)	137

K리그 윙백 크로스 성공률 TOP 5

1	이용(전북)	27%
2	이기제(수원)	26.3%
3	정동호(수원FC)	25%
4	정우재(제주)	24.4%
5	강상우(포항)	23.5%

*60회 이상 크로스 시도 선수 한정

대신 앞선의 김민우가 1선으로 빠르게 쇄도해 팀의 왼쪽 공격 옵션을 만들어준다. 김민우와 이기제라는 두 가지 공격 옵션이 역습의 주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강력한 왼쪽 라인을 형성했다. 이기제는 이번 시즌 K리그 윙백 중 패스 관련 지표에서 모두 최상위권이다. 크로스 시도와 크로스 성공률 수치로 각각 1, 2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크로스를 시도했고 성공률도 높았다. 패스횟수(2,222회, 1위), 키패스(50회, 2위), 공격지역 방향 패스(863회, 1위), 공격지역 전진패스(221회, 1위) 등 패스 지표가 압도적이다.



2) 제주: 윙어처럼 똘 정우재 & 안현범

제주는 양 윙백을 매우 공격적으로 활용한 팀이다.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최전방에 넓고 깊게 위치하여 상대 수비라인을 누르는 형태다. 양 윙백이 높게 올라서므로 제주 백스리의 좌우 센터백은 보다 적극적으로 빌드업을 전개해야 한다. 이번 시즌에는 김오규와 정운이 빌드업 시 센터백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다. 높게 전진한 제주의 윙백은 최전방에서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갖는다. 수비를 상대로 일대일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고,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득점 기회를 노릴 수도 있다. 윙어 역할을 수행하여 나머지 공격 자원들이 중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슈팅 숫자 측면에서 정우재(29개)-안현범(40개) 조합은 수원의 이기제(29개)-김태환(54개) 조합에 밀린다. 그러나 슈팅당 평균 xG 값은 수원 조합을 훨씬 뛰어넘는다. 정우재와 안현범이 그만큼 결정적 슈팅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K리그 윙백 슈팅당 평균 xG TO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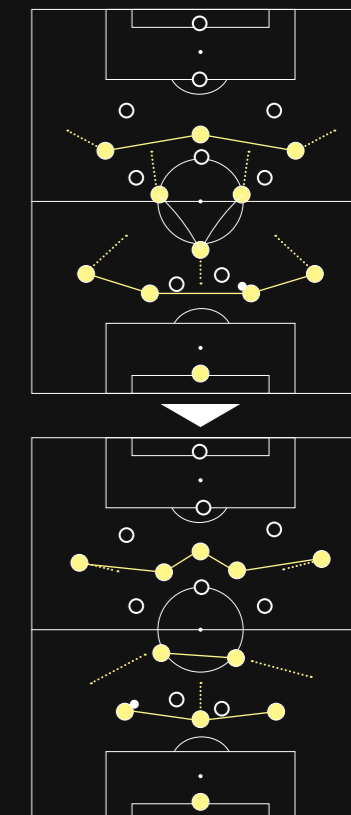
1	강상우(포항)	0.111
2	안현범(제주)	0.108
3	정우재(제주)	0.095
4	이으뜸(광주)	0.08
5	김태환(수원)	0.078
6	임창우(강원)	0.057
7	설영우(울산)	0.054
8	이기제(수원)	0.046



3) 서울: 미드필더 위치 활용

서울의 양 윙백은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변화를 보였다. 기조는 4-3-3이다.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이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 백스리를 형성했다. 좌우 미드필더는 1선으로 전진하고, 스리톱은 넓게 벌려 섰다. 이로 인해 비워진 중원에 양 윙백이 좁혀 들어가 2MF 전형을 형성했다. 4-3-3에서 3-2-5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윙백들이 중앙에 위치하지만 적극적으로 빌드업을 주도하진 않았다. 주로 상대 미드필더를 끌어내는 역할이었다. 상대 미드필더가 끌려온다면 자연스럽게 1선의 다섯 선수들에게 공간이 열린다. 빌드업은 패스

능력이 뛰어난 후방에서 주도한다. 오스마르, 기성용, 이한범이다. 전방에 공간이 펼쳐지면 주저없이 그곳으로 볼을 투입하는 패턴이었다. 상대가 내려앉아 마땅한 빌드업 옵션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에 자리한 윙백이 전진했다. 또 다른 전진패스 선택지를 가져다줄 수도 있으며,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윙백이 전진해 1선에 6명의 숫자가 확보될 경우 윙어와 좌우 미드필더 측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3-3에서 3-2-5로 전환하는 과정



TOPIC #2 | 변칙의 기술

프로 클럽이 한 시즌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좋은 전력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팀이 화려한 스쿼드를 구축할 수는 없다. 외국인 영입이 100%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시즌 중 자칫 핵심 자원을 부상으로 잃으면 큰 타격이다. 전략과 전술을 통째로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변칙의 기술이 등장한다.

1) 포항: 이승모 활용한 제로톱 전술

이번 시즌 포항은 최전방 공격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

려움을 겪었다. 일류첸코는 이적했고, 새로 영입한 타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악조건에 맞서 김기동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미드필더의 전진이었다. 이승모는 4-2-3-1 포메이션의 최전방에서 전술적 핵심으로 활약했다. 포항은 공격시 4-2-4에 가까운 대형을 형성하는 팀이다. 중앙의 투톱은 연계에 치중하며 후방 선수들의 패스 옵션이 되어준다. 상황에 따라 낮은 위치를 점유하며 중원과 간격을 좁히는 형태다. 이승모가 연계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전술 체제다. 이렇게 중앙 투톱이 연계에 치중한다면 양 윙어들은 넓고 깊게 위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 수비와 일대일 구

도를 만들거나 뒷공간을 공략한다. 임상현, 팔라시오스, 권기표 등 빠른 윙어들이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승모는 K리그1 포워드 중 90분 당 평균 패스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였다. 평균 33.4회 패스를 시도하며 연계 플레이에 적극 가담했다. 최전방에 서지만 미드필드 1/3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매우 높았다. K리그1 포워드들 중 중앙지역 패스 기록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19.31회)를 보였다. 중앙지역 전진 패스(5.83회), 중앙지역 횡패스(6.45회) 기록에서도 최고 수치다. 전반적으로 공격시 중앙지역에 가담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반면 공격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부족했다. 앞선 8명의 포워드들에 대한 공격지역으로의 패스와 공격지역 전진패스 수치를 분석해볼 때, 이승모는 타 선수들에 비해 공격지역에 관여되는 패스를 효율적으로 뽑아내지 못했다. 종종 상대 수비 진영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해 슈팅 찬스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90분당 평균 슈팅 횟수는 1.89회다. 이번 시즌 20경기 이상 출전한 24명의 공격수 중 1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승모보다 위에 자리한 17명은 모두 90분당 평균 2회 이상 슈팅을 기록했다.

K리그 포워드 90분당 평균 패스

1 이승모(포항)	33.4
2 일류첸코(전북)	31.87
3 김건희(수원)	31.37
4 고무열(강원)	29.39
5 진성욱(제주)	29.19
6 김승준(수원FC)	28.45
7 양동현(수원FC)	27.41
8 라스(수원FC)	26.08

*20경기 이상 출전 선수만 집계



2) 전남: 중앙 공격수를 날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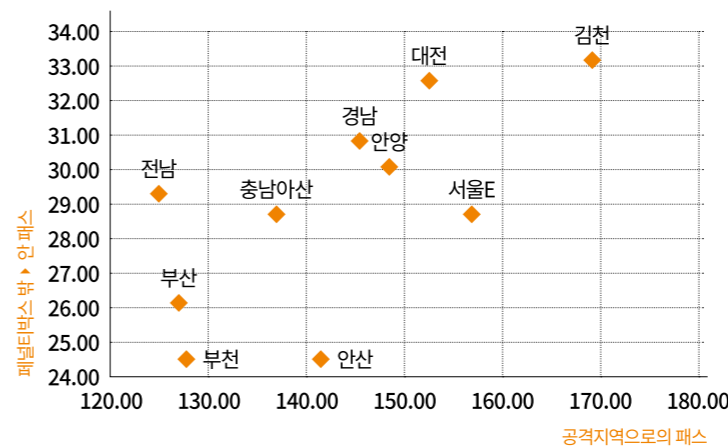
전남은 겨울 이적시장에서 박희성(188cm)과 발로렐리(183cm), 사무엘(183cm)을 영입했다. 모두 중앙 공격수 자리에 적합한 자원이다. 뛰어난 신체 조건으로 상대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뜻밖에도 전경준 감독은 이들 세 선수를 윙어로 활용했다.

전남은 공격시 4-2-1-3에 가까운 대형을 형성한다. 양 윙어 자리의 선수들이 중앙으로 좁혀오는 형태다. 좁은 스티프 자리에 박희성과 발로렐리, 사무엘, 알렉스 등 피지컬이 뛰어난 자원을 모두 배치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이종호, 김병오를 배치해 속도전을 펼칠 수도 있다.

상대 수비는 중앙에 많은 숫자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중앙에서 일대일로 막아서면 전남 공격수가 피지컬로 누를 수 있다. 혹은 상대 양 측면이 벌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틈을 김현욱과 양 윙백이 전진해 공략한다. 전남은 이런 방식을 통해 수비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공격시에 다양한 패스 선택지를 확보한다.

효율적인 공격을 추구하는 전남의 성향은 지표상으로도 잘 드러난다. 공격지역으로의 패스 횟수에서 전남의 수치(경기당 124.97회) 자체는 K리그에서 가장 낮다. 전체 패스 시도 역시 리그 내에서 3번째로 낮다(408.78회). 대신 페널티 밖에서 안으로 보내는 패스(29.22회)가 매우 효율적이었다. 공격지역에서 이뤄지는 패스 자체는 적지만, 전방으로 볼을 한 번 투입할 때 상대 박스까지 공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공격 생산성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번 시즌 전남은 38골을 넣었는데, 기대득점(xG)은 무려 48.3골이었다. 실질적으로 48골 정도의 득점을 성공해야 됐다는 뜻이다. 이는 김천(60골), 대전(56골), 안양(52골)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번 시즌 전남의 공격 생산성이 리그 내에서 수준급으로 손꼽힐 만큼 좋았다는 뜻이다.

K리그2 공격 지표



3) 대구 | 윙백이 된 센터백, 김재우

시즌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36R 수원전. 후반 32분 주전 윙백인 장성원이 어깨 부상으로 아웃됐다. 또 다른 윙백 자원 정승원은 스쿼드에서 이탈한 상황. 이병근 감독의 선택은 187cm의 센터백 김재우였다. 김재우는 뛰어난 피지컬 외에 100m를 11초대에 주파하는 주력으로 소망수가 될 수 있었다. 시즌 중 오른쪽 윙백으로 나선 이진용 카드도 있었지만 이병근 감독은 김재우를 계속 기용했다.

본업이 센터백인 탓에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공격을 펼치기에는 무리였다. 체력적으로도 부담일 뿐 아니라 상대 수비와 일대일 상황에서 공격적인 우위를 확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볼을 받자마자 박스 안으로 얼리 크로스를 전개했다. 상대 수비와 일대일 상황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최대한 빨리 볼을 배출했다. 명확한 아웃 스윙 궤적의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의 공격수들을 지원했다. 워낙 볼이 바깥쪽으로 잘 휘었던 탓에 상대 수비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기도 했다.

수비 쪽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합격점. 기본적인 수비력이 좋고 스피드에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 윙어를 막는데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대구의 오른쪽 측면을 잘 메웠다.



TOPIC #3 INTERVIEW

코로나 시대의 피지컬 코치

2021시즌은 코로나 시대에 치러진 두 번째 K리그였다. 무방비 상태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경기 일수를 축소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 시즌에는 K리그1(38경기)과 K리그2(36경기) 모두 일정을 완주했다. 하지만 변수가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바이러스 질병인 코로나 특성상 예기치 못한 감염과 격리에 일정을 조정해야 했던 팀들이 있다. 한편 ACL 참가로 뻘뻘한 일정을 소화한 팀들도 있다. '코로나 버블(안전권역을 지정해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동선을 제한함)'로 대회를 치르는 이색 경험이 있다.

성남과 포항의 피지컬 코치로부터 코로나 시대를 통과한 경험담과 관리법에 대해 들었다. 성남은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팀이었다(선수 14명, 스태프 8명. 선수단 전원 자가격리). 포항은 클럽월드컵을 다녀온 울산 다음으로 올해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팀이었다(50경기).

휴식기 없이 최다 경기 소화

포항 피지컬 코치 주닝오

피지컬 코치로서 2021시즌의 포항을 간단히 돌아본다면?

이번 시즌 우리팀은 해외 원정이 포함된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했다. 주당 거의 2경기를 소화하면서 3개 대회(FA컵)에 출전하게 된 것이다. 주기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긴 일정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

적인 부분에 대한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팀은 선수층이 두껍지 않아 로테이션을 통한 선수 운영이 어려웠다. 때문에 내 관심사는 부상이 없도록 선수의 체력과 회복 수준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19경기를 더 뛰었다. 늘어난 경기 수를 잘 소화하기 위해 훈련 방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예컨대 임상협은 15m의 가속 능력을 가진 폭발적인 선수다. 그에게는 파워와 스피드 특성이 더 많은 훈련을 요구했다. 크베시치, 신진호, 이승모는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고 가장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저항성의 특징(팀내 비교 분당 거리 높은 선수)을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해 시즌 동안 성과를 내고 장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선수들의 포지션과 특징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감독님의 도움을 구했다.

ACL 참가로 다음 팀과 달리 장기 휴식기가 없었다. 장기 휴식기의 부재로 선수단 체력/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사전에 휴식기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동을 개별적으로 실행했다. 경기 이틀 전 48시간을 준수하며 선수 전원에게 근력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몇몇 복잡한 일정에는 부상 방지 트레이닝(강도 준수 요구)을 진행했다. 적어도 10일 마다 가벼운 근력운동과 고강도 운동의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ACL이 '코로나 버블' 형태로 치러져 ACL일정에 대한 부담이 덜했을 것 같기도 하다. '코로나 버블' 형태로 치러진 ACL이 한 시즌 선수단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지정된 공간에서 동선이 제한된 생활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AFC에서 제공하는 좋은 음식 외에도 한식을 준비해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선수 회복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또 컨디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그덕에 한 시즌 동안 근육부상자가 없었다. 로테이션 풀이 한정적이었음에도 베테랑 선수들(신진호, 신광훈, 임상협, 오범석)이 경기에 나설 때 어린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우리팀에 코로나 사례가 없었던 것도 다행이다.

포항은 엔트리 평균 연령이 K리그1에서 가장 낮은 팀 중 하나다. 어린 선수들을 프로 무대에 적합한 피지컬로 만들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훈련이 있다면?

예컨대 김문성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다른 선수들과 함께 훈련했다. 이호재는 미세운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해 코디네이션 및 추가 훈련을 수행했다. 어린 연령의 선수들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실제로 포항에서 뛰기 위해서는 대담해야 한다. 자신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썼다.

확진자 대거 발생과 두 번의 자가격리

성남 피지컬 코치 한상혁

피지컬 코치로서 2021시즌의 성남을 간단히 돌아본다면?

공교롭게도 성남은 이번 시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팀이었다. 자가격리 기간도 길었고, 순연 경기가 가장 많은 팀이었다(총 6경기, 총 7회). 컨디션과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가격리 이후 선수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지? 차이를 보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우선 첫번째 격리(주전 선수들 밀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때는 호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자가격리 중 심폐기능을 충분히 자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마치 동계훈련 전 상태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자가격리 해제 후 8일만의 준비기간을 거쳐 경기를 준비해야 했다. 경기 초반 호흡 문제나 적응 문제가 분명 존재했다. 이른 실점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또한 선발선수 선택에 있어 체력적 준비상태가 이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두번째 격리(상당수 선수들이 확진 판정) 때는 호흡적인 문제와 더불어 근력 문제도 컸다. 확진자들은 격리로 인해 운동량이 줄었지만 체지방량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대신 격리 중 신체활동이 급격히 적어지면서 근육량이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 선수들도 체감했다. 격리 후 훈련 중 이전에 소화했던 체력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선수들의 자각도 반응은 훨씬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몸이 여전히 무겁거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다.

자가격리 중에는 선수들 몸 관리를 위해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그리고 이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자가격리 중엔 비대면 훈련을 진행하며 틈틈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직접 체크했다. 최우선 과제는 신체 밸런스 유지였다. 자가격리 중에 성취하기 어려운 심폐 지구력 운동은 과감히 힘을 뺐다. 대신 전략적인 운동법을 통해 근육을 자극시켜 근육의 양과 질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줄어든 활동량만큼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되 끼니마다 단백질 섭취량은 오히려 높였다. 취침 전 단백질보충제 섭취를 권장하며 체지방과 근육량을 지키는 식단 전략을 추가했다.

확진자의 경우 선수마다 증세나 후유증이 달랐을 것 같다. 자가격리 종료 후, 각각의 컨디션이 고르게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피지컬 코치로서 팀의 경기력을 균질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격리 후엔 선수들의 체력 준비상태가 선발 라인업을 짜는데 큰 부분을 차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폐에 문제가 있어 격리해제가 예정일보다 늦게 이뤄진 선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긴 선수, 확진 판정을 받기보다 늦게 받아 격리해제 자체가 늦은 선수 등이 있었다. 격리 후에 7일 안에 3경기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무리하게 첫 경기에 투입하기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준비시키려고 했다. 따라서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선수들과 그 후 경기들을 준비할 선수들을 그룹으로 나눠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없는 선수들은 그 다음 일정에 맞춰 좀 더 점진적인 체력훈련을 제공했다. 과부하로 인한 부상 예방 차원이었다.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순연 경기가 발생한 팀이다. 순연 경기로 타 구단과 다른 사이클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8월 한 달 동안 8경기를 치러야 했는데, 이에 어떤 어려움을 느꼈는지?

순연 경기들은 우리팀에게 유리한 일정이 아니었다. 자가격리 때문에 결국 팀 훈련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체력 및 전술적 부족에 불리한 일정까지 소화해야 해서 어려움이 컸다. 8월에는 한여름 무더위로 체력적인 부담이 더 커졌다. 28일 동안 8경기를 치러야 했다. 휴식기 동안 굉장한 고강도 하게 전지훈련을 만족스럽게 소화한 직후였는데, 코로나 감염이 발생하여 훈련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른 팀은 긴 휴식기 동안 회복과 체력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성남은 격리 해제 이후 8일 동안 만의 훈련으로 다음 8경기를 버틸 체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막막했다. 부상과 컨디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훈련을 통한 체력 발전보다 회복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구단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면과 영양이다. 회복에 좋은 특별식을 영양사와 식당 어머니들이 지속적으로 준비해주셨다. 구단에서도 훈련이나 경기 후 빠른 회복을 위해 냉욕 및 크라이오테라피를 지원해주셨다.

현재 코로나 추이를 보면 내년에도 코로나 속 시즌을 보내게 될 것이다. 올해를 거치며 느낀 '코로나 시대 피지컬 관리법'의 핵심은? 다음 시즌 대응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올 시즌 코로나로 여러 차례 고생해보니 코로나 시대 피지컬 관리법의 핵심은 코로나에 안 연이고 안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팀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상대팀 확진 선수에 의해, 그리고 전지훈련 중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발생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영향을 받으니 개인방역이 무용지물이란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개인방역을 신경 쓰지 않았더라면 코로나로 고통받는 상황이 더 생겼을 수도 있다.

다음 시즌에도 개인방역을 철저히 강조하고 이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면역력을 더욱 증진시켜 코로나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예방이나 빠른 극복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다. 팀 차원에서 수면이나 영양 그리고 휴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격리라는 만악의 경우를 대비해 선수들의 비대면 트레이닝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장비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여 더 효과적으로 컨디션 저하를 방지할 계획이다.



03

ANALYSIS

2021시즌 K리그는 전술적으로 어떤 패턴을 보였을까. 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더 깊이 있고 다양하게 K리그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리포트에는 기존에 잘 활용하지 않았던 PPDA(압박강도), 시퀀스데이터, xG(기대득점) 등을 비프로11으로부터 추가로 제공받아 그 분석에 깊이를 더했다.



GOAL SCORING 득점

K리그1이 다시 정상 일정을 소화한 한 해였다. 기존과 같은 228경기 체제로 돌아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일정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여기에 수비 조직력의 상향 평준화로, 경기당 단 2.46골만 터지며 지난 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득점 추이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추가 시간 득점이 늘어나면서 승부의 짜릿함은 배가됐다. 지난 시즌 추가 시간 득점이 전·후반 합쳐 27골이었던 것에 비해, 올 시즌은 69골이 터지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71

K리그1 9회 우승-5연패를 달성한 전북이 이번 시즌 기록한 득점 수. 리그 최다 득점팀이지만, 71골은 2015년 이후 6년 만의 최소 수치다.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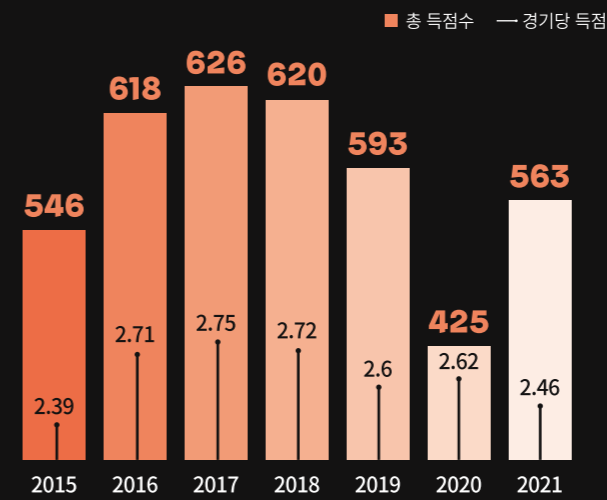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난 경기는 26경기였다. 무득점 무승부 경기가 가장 많았던 팀은 울산(6경기)이었고, 가장 적었던 팀은 광주(2경기)였다.

전술 변화가 득점력에 끼친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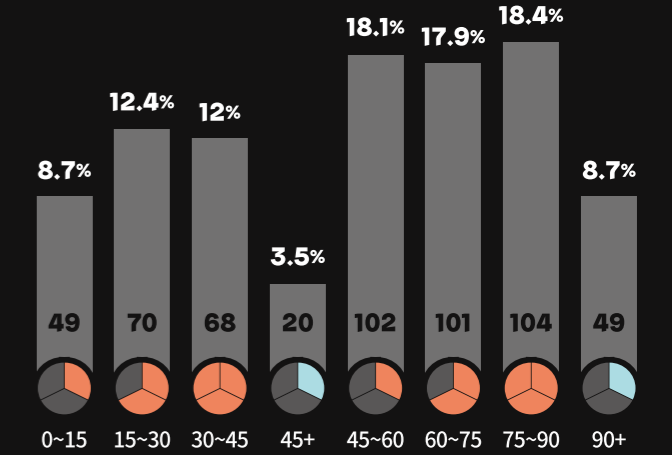
올 시즌 K리그1은 228경기에서 총 563골이 터지며 최근 5년 내 가장 저조한 경기당 득점률(2.46골)을 보였다. 425골(경기당 2.62골)이 터졌던 지난 해와 비교하면, K리그1 팀들의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이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리그 전반적으로 후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백스리 전술을 활용하는 팀들이 늘어났다. K리그2에서 승격한 제주, 그리고 백포에서 백스리로 전환한 강원과 수원 FC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하위권 팀들의 수비 조직력도 올라왔다. 2년 연속 최다 실점을 기록한 광주만 봐도 경기당 1.7실점에서 1.37실점으로 줄었다.

그러다 보니 상위권 팀들의 공격도 어려워졌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 상위권 팀들의 경기당 득점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득점 상위 4팀을 놓고 보면 2020시즌에는 포항(2.07골), 울산(2골), 전북(1.7골), 대구(1.59골) 순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전북(1.86골), 울산(1.68골), 수원FC(1.39골), 제주(1.31골)로 경기당 2골을 넘는 팀이 없다. 이처럼 지난 2019, 2020년보다 낮은 수치의 득점 표준편차는 상위팀과 하위팀 간의 득점 분포도가 더욱 좁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목할 부분은 추가 시간 득점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이다. 전체 563골 중 69골이 전·후반 추가 시간에 터

시즌별 득점 추이



시간대별 득점 수치



졌다. 경기 첫 15분 득점 비중이 지난 시즌 425골 중 47골(11%)에서 올해 563골 중 49골(8.7%)로 줄어든 데 비해, 추가 시간 득점은 전반 20골(3.5%), 후반 49골(8.7%)로, 지난 시즌에 비해 각각 1.4%, 4.5% 증가했다. K리그1 팀들의 수비 조직력이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득점 수가 줄어들고, 그마저도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추가 시간에 득점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득점 추이를 살펴볼 때 가장 인상적인 팀을 꼽자면 전북이다. 전북은 이번 시즌 K리그1 최다 득점팀(38경기 71골)이자 팀 중 전·후반 간의 득점 수 차이가 가장 큰 팀으로, 71골 중 53골을 후반전에 넣었고 후반 추가 시간 득점도 무려 10골이나 기록했다. 구스타보, 일류첸코 등 스트라이커는 물론 문선민, 한교원, 바로우, 송민규 등 리그 최고 수준의 다양한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팀답게 후반전 선수 교체에서 우위를 가졌다는 부분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전북은 교체 투입된 선수로만 26골을 넣어, 리그에서 유일하게 교체 선수로 유일하게 20골 이상 기록한 팀이 됐다. 이처럼 후반전 득점 능력, 특히 후반 추가 시간 득점들로 인해 전북은 3R 강원전, 16R 서울전, 35R 울산전 등에서 경기 막판에 결과를 뒤집는 '뒷심'을 보였다.

골 결정력 최고는 전북, 기대보다 못한 팀은 대구

전북의 기록을 들여다 보면 재미있는 점이 또 있다. 일류첸코, 한교원, 김보경, 쿠니모토 등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한 득점이 7골이나 나왔다. 솔로 플레이

나 선수 개인 능력으로 풀어낸 득점은 단 한 골도 없다. 팀원들 간의 패스 플레이가 돈독했다는 방증이다.

전북은 K리그1 팀들 중 유일하게 기대득점이 실 득점 수보다 낮았다. 만들어낸 득점 찬스에 비해 실 득점 수가 많았다는 이야기로, 그만큼 전북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좋았다는 뜻이 된다. 또한 '슈팅당 평균 기대 득점값' 수치에서도 K리그1 팀 중 1위(0.147xG)였으며, 이는 2위 울산(0.124xG)은 물론 K리그1 전체 평균 수치(0.116xG)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다. 반대로 기대 득점 대비 실 득점수가 가장 낮은 팀은 대구였는데, 대구는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며 이번 시즌 단 39골(자책골 포함 41골)에 그쳤다. 기대 득점 대비 실 득점 수로 계산해 본 선수 개개인의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이번 시즌 대구는 '기대 득점-실 득점' 수치가 1을 넘는 선수들이 7명으로 K리그1 팀들 중 두 번째로 많다. 수치상으로 볼 때 1골 이상을 놓친 선수들이 7명이라는 의미로, 특정 선수가 아닌 여러 명의 선수들이 균등하게 기회를 놓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대신 '기대 득점-실 득점' 격차가 2를 넘는 선수는 없다. 또한 대구에서 기대 득점과 실 득점 간의 격차를 가장 크게 보인 선수는 센터백 정태욱(+1.89)이다.

2021 K1 득점-기대 득점(xG)

팀	득점 (자책골 제외)	기대 득점 (xG)
전북	69	63.02 (-5.97)
울산	64	64.15 (+0.15)
수원FC	52	55.36 (+3.36)
제주	47	53.38 (+6.38)
서울	43	46.9 (+3.9)
포항	41	53.14 (+12.1)
광주	41	49.98 (+8.98)
수원	40	43.08 (+3.08)
대구	39	52.75 (+13.75)
강원	39	48.85 (+9.85)
인천	37	41.42 (+4.42)
성남	30	35.77 (+5.77)

대구FC 'xG - 실 득점'

이름(득점 수)	'xG - 실 득점'
정태욱 (1)	1.89
에드가 (10)	1.692
라마스 (0)	1.657
홍정운 (1)	1.448
안용우 (0)	1.416
정치인 (2)	1.325
박한빈 (0)	1.2

65

주민규가 박스 안에서 시도한 슈팅 개수다. 83개의 슈팅 중 78.3%에 달하는 슈팅을 박스 안에서 시도했다. 1위 라스(87개)에 이어 2위다.

357

단 한 번이라도 경기에 출전한 적 있는 K리그1 선수들 중, 이번 시즌 한 번도 골맛을 보지 못한 선수들의 수다.

득점 상위 분석- 독보적 피니셔, 주민규

5년 만의 '토종 득점왕' 주민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2,685분을 뛰면서 22골을 기록한 주민규는 2위 라스(4골)를 따돌리며 2016년 정조국 이후 득점왕 자리에 오른 국내 선수가 됐다. 90분당 평균 수치로 계산하면 0.74골로, 전북의 구스타보(0.78골)에 이어 K리그1 선수 중 2위다.

주민규의 지표 중에서 인상적인 점은 기대 득점과 실득점 간의 격차가 -5.71로 가장 낮다는 점이다. 즉, K리그1 내에서 가장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얘기다. 뛰어난 피지컬과 상대 골문 앞에서의 집중력이라는 강점을 살려, 골문 안으로 연결시키기 힘들어 보이는 공도 골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췄다. 주민규의 골문 앞 집중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24R 전북 전 득점을 제외한 모든 골을 박스 안에서 넣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득점에 관련해서는 전북의 두 공격수, 일류첸코와 구스타보의 지표도 주목해볼 만하다. 일류첸코와 구스타보는 이번 시즌 각각 15골씩 기록하며 득점 공동 4위에 올랐다. 일류첸코는 54개의 슈팅과 31개의 유효 슈팅, 구스타보는 56개의 슈팅과 26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다. 득점 상위 10명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 '슈팅에서 득점으로 확률' 1위가 일류첸코(27.7%), 2위가 구스타보(26.7%)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득점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류첸코와 구스타보의 차이는 '슈팅당 평균 xG' 수치에서 갈라진다. '슈팅당 평균 xG'은 득점으로 이어지기 가장 좋은 환경에서 슈팅을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류첸코는 무려 슈팅당 평균 0.237xG의 수치를 보이며 득점 상위 10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구스타보는 0.208xG로 1위 일류첸코와 차이가 벌어진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류첸코의 경우, 피지컬을 앞세운 공격수지만 부드러운 발 기술을 통해 동료 선수들과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격 지역에서의 원 터치 플레이가 그의 최대 강점이라는 점, 그리고 동료 선수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라는 점이 작용한 결과다.

이에 비해 구스타보는 뛰어난 피지컬과 결정력을 주무기로 삼아, 상대 수비와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볼을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 일류첸코보다



더욱 혼잡한 상황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다. 일류첸코가 보다 완벽한 상황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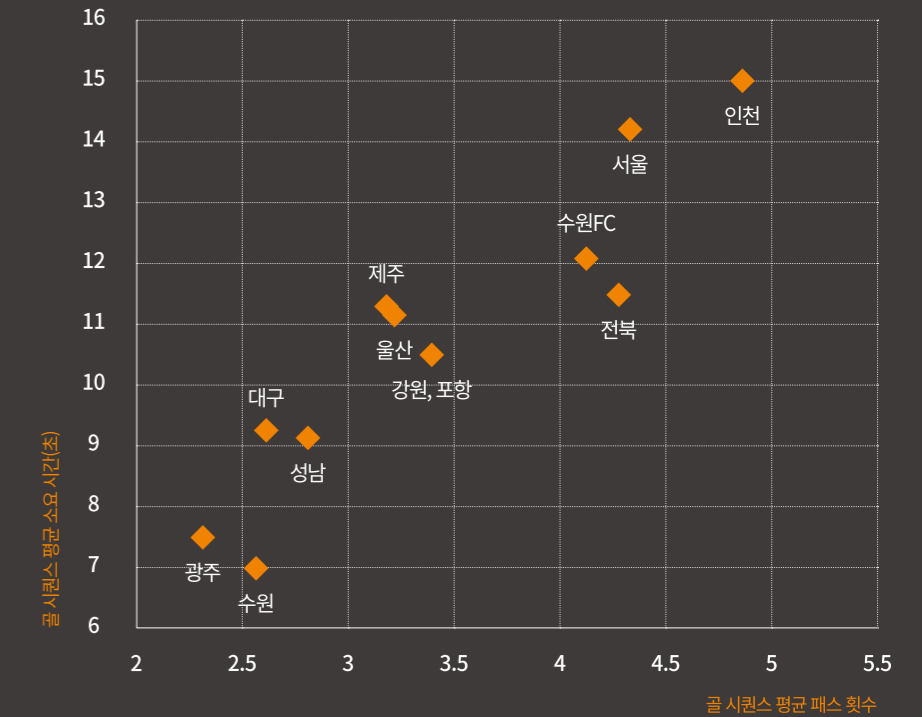
골 시퀀스 분석

'잔류왕'이라는 별명을 떨쳐내고, 안정적으로 생존에 성공한 인천의 골 시퀀스 수치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은 K리그1에서 가장 간결한 공격을 추구하는 팀 중 하나다. 볼 점유율은 44.7%로 리그 10위에 머물고, 시퀀스당 평균 패스 횟수도 3.48회(10위) 밖에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점유율이 낮은 데다가 한 차례 볼을 소유하는 상황에서도 간결한 공격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골 시퀀스' 부분으로 한정 지어 본다면 재미있는 수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인천은 리그 112개 구단 중 득점 시 가장 점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골 시퀀스의 '평균 소요 시간'과 '평균 패스 횟수' 수치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가장 간결한 골 시퀀스를 보이는 광주, 수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골 시퀀스'에서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 이유는 인천의 득점 분류와 관련이 있다. 인천은 주로 측면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편으로, 이번 시즌 전체 38골 중 9골을 측면 크로스를 통해 성공시켰다. 측면에서의 점진적인 전개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중앙에 비해 비교적 볼을 소유하기 쉬운 측면에서 선수들의 순간적인 공간 침투를 통해 크로스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여차하면 반대 진영으로

K1 팀들의 골 시퀀스 그래프



전환해서도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다. 전환 패스 능력이 뛰어난 아길라르, 상대 밀집 수비를 벗겨낼 만한 개인 능력이 있는 네게바, 활동 범위가 광범위한 김도혁은 물론, 텔브리지, 강윤규, 김창수 등 백파이브 라인에 전진성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인천이 이런 선수들의 특색을 잘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K리그1 팀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울산(60.7%)이 인천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울산은 '골 시퀀스' 지표에서 '평균 소요 시간' 7위(11.01초), '평균 패스 횟수' 지표에서 6위(3.29회)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그쳤다.

울산은 기술이 뛰어난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답게 유기적인 움직임들을 통해 많은 볼을 점유하지만, 득점시에는 이동경, 이동준, 오세훈 등의 공간 침투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내는 편이다. 상대 수비가 특정 지역에 몰리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를 노려 득점을 뽑아낸다. 여기에 양쪽 윙백인 설영우와 김태환이 넓고 깊게 위치하는데, 김태환은 상대 수비를 제쳐내고 크로스까지 이어갈 수 있는 윙백인 만큼 상대 수비는 중앙과 측면을 모두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다.

K1 골 시퀀스 비교

팀	골 시퀀스 평균 패스	골 시퀀스 평균 시간
전북	4.21회	11.52초
울산	3.3회	11.01초
대구	2.63회	9.19초
제주	3.28회	11.2초
수원FC	4.09회	12.04초
수원	2.52회	7.03초
서울	4.3회	14.12초
인천	4.92회	15.06초
포항	3.4회	10.54초
성남	2.78회	9.08초
강원	3.4회	10.55초
광주	2.3회	7.48초

득점 순위 TOP 10

순위	이름	득점	xG	슈팅	유효슈팅	경기당 득점
1	주민규(제주)	22골	16.28	83	38	0.65
2	라스(수원FC)	18골	16.98	118	45	0.49
3	구스타보(전북)	15골	12.02	56	26	0.44
4	일류첸코(전북)	15골	12.83	54	31	0.44
5	물리치(성남)	13골	12.02	117	50	0.36
6	이동준(울산)	11골	9.45	58	25	0.34
7	임상협(포항)	11골	6.81	43	25	0.31
8	에드가(대구)	10골	11.69	68	28	0.31
9	송민규(전북)	10골	8.32	58	22	0.30
10	팔로세비치(서울)	10골	8.2	49	26	0.29

SET PLAYS

세트 플레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들어진 약속된 플레이 하나가 공격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간절히 필요할 때 발휘되는 마법이기도 하고, 계산과 연습으로 완성시킨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팀이나 세트 플레이는 비장의 무기라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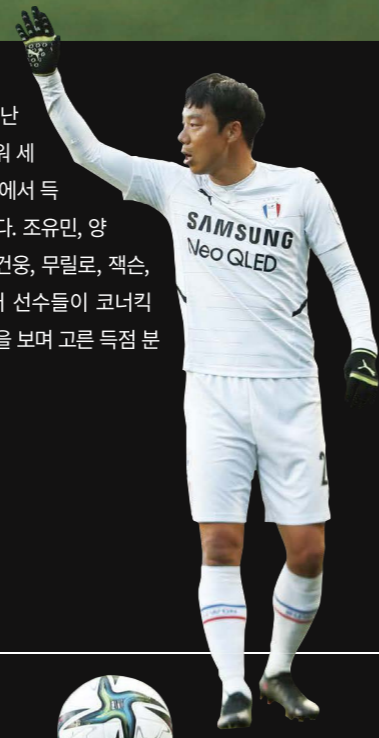


K리그 세트 플레이 득점 순위

전북	16
수원FC	14
수원	14
울산	13
포항	12
성남	12
광주	12
대구	10
강원	10
인천	6
제주	5
서울	3 (PK 제외)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다. 모든 팀은 골을 넣기 위해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의 진영을 오가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당연하게도, 굳건한 상대 수비를 뚫고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득점 루트가 필요하다. 2021년 K리그1 우승팀인 전북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전북은 이번 시즌 세트 플레이로 최다 득점(16골)을 올린 팀으로, 코너킥(8골), 스로인(2골), 프리킥(3골), 직접 프리킥(3골) 상황에서 골고루 득점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돌풍을 보여준 수원FC 역시 세트 플레이 상황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K리그1 팀 중 코너킥 상황에서 가장 많은 골(11골)을 넣으며 전북에 이어 세트 플레이 득점 순위 2위에 올랐다. 수원FC의 경우,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을 앞세워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다. 조유민, 양동현, 라스, 김건웅, 무릴로, 잭슨, 정재용 등 여러 선수들이 코너킥 상황에서 골맛을 보며 고른 득점 본포를 자랑했다.



주요 세트 플레이 득점 분석



전북 다채로운 세트 플레이

매우 다양한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낸 전북은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이 기록한 코너킥 상황 득점(8골) 중 5골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선제골이 됐다. 또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는 백승호(2골)와 이승기(1골)의 활약이 돋보였다. 백승호는 이기제(3골), 윤빛가람(2골)과 함께 이번 시즌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2골을 넣었다. 스로인 상황에서는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운 일류첸코와 구스타보가 박스 안으로 투입된 스로인 볼을 받아 동료 선수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패턴으로 활약했다.

제주 잘 짜여진 코너킥(33R vs 성남)

잘 짜여진 세트 플레이 하나가 팀을 살린다. 파이널 라운드가 코앞까지 다가온 33R, 제주는 후반 추가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기회를 맞았다. 김오규가 스크린을 걸고 있는 두 선수의 등 뒤로 빠르게 돌아 뛰어 킥을 머리로 돌려 찼고, 김경재가 이를 받아 골로 연결시켰다. 이번 시즌 코너킥 상황에서 단 2골만을 넣은 제주였지만, 그 어느 팀보다 극적인 코너킥 득점으로 승점 3점을 가져오며 파이널A에 진출했다.



서울 이인재 백힐~레안드로 백힐~고재현 슈팅(9R vs 안산)

서울 이랜드와 안산의 리그 9R 전반 9분, 흥미로운 코너킥 플레이가 나왔다. 서울 이랜드의 키커 광성욱이 킥을 때리려는 찰나 먼 쪽에 위치해있던 이인재가 빠르게 잘라 들어와 레안드로에게 백힐 패스를 내줬다. 그대로 슈팅으로 이어지려 했지만, 레안드로 역시 뒤쪽의 고재현에게 백힐로 볼을 내주며 보다 완벽한 슈팅 기회를 만들어줬다. 비록 이 세트 플레이는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후 후반 77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상민이 잘라 들어오는 비슷한 패턴을 통해 기어코 득점에 성공했고 리그 3연패에서 탈출했다.

충남아산 상대 벽을 흔드는 재치

상대의 수비벽을 흔드는 재치 있는 세트 플레이가 나왔다. 아산의 박세진과 박세진이 프리킥을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킥을 처리할지에 대해 한참 얘기를 나누더니, 박세진이 킥을 처리하는 시늉을 하며 달려 나간다. 곧바로 박세진이 프리킥을 차는가 하더니 킥 모션을 멈춰 손짓을 하는 순간 다시 박세진이 돌아와 킥을 처리했다. 아산은 이를 통해 대전 수비의 템포를 빼앗았고, 프리킥을 위협적인 슈팅으로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김인균이 완벽한 프리맨이 되어 상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으나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COUNTER ATTACK 연습

K리그는 '속도'의 리그다. 빠른 속도와 힘 좋은 선수들이 많은 K리그는 그 어느 리그보다 빠른 전환을 강조한다. 이번 시즌은 특히 대구, 수원, 광주 등 역습에 뛰어난 팀들이 유난히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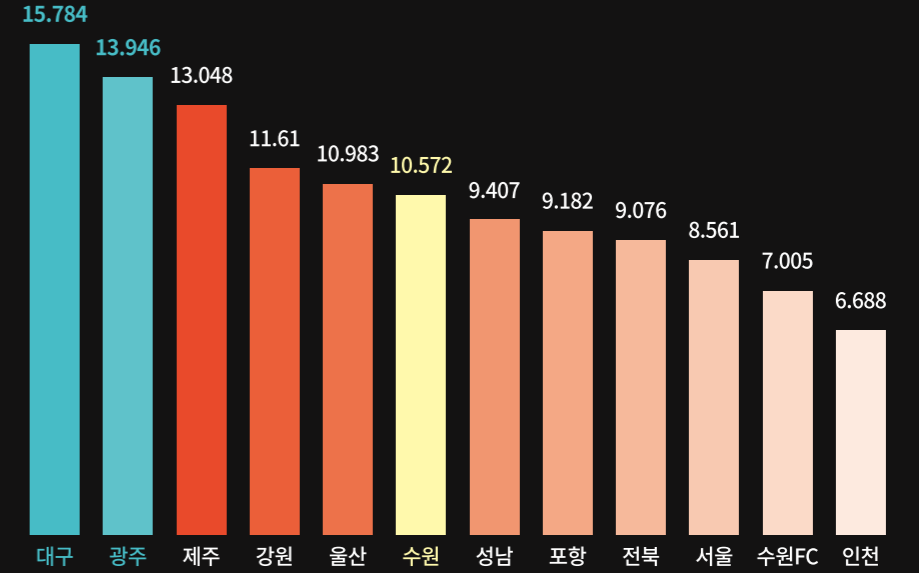
35.97

이번 시즌 대구의 수비지역 획득 평균이다. 1,367개로 경기당 35.97개의 획득을 수비지역에서 얻어냈다. 이 항목에서 대구는 1위 수원FC에 단 1개 차이로 뒤진 2위를 기록했다.

빠른 역습은 위협적인 공격으로 이어진다. '골 시퀀스 데이터'를 살펴보면 역습에서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공격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낸 대구와 광주, 그리고 수원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팀은 역시 대구다. 대구는 골 시퀀스에서 상대 골대 방향으로의 볼 전개 속도 및 직선 이동 거리를 토대로 계산한 '평균 다이렉트 스피드'와, '평균 시간' 수치에서 상위권에 올라있다. 그만큼 득점 상황에서 간결하고 빠른 전개를 통해 골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상대의 뒷공간을 노려 날카롭게 파고드는 간결한 역습 축구를 앞세워 K

리그1 3위, FA컵 준우승,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및 2022년 출전 티켓까지 거머쥐었다. 수원은 선수 개인의 기동력을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김민우, 김태환 등 빠른 선수들이 왕성하게 움직이며 역습을 전개하고 공격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낸다. 직선 스피드는 조금 부족할 지 몰라도, 골 시퀀스의 '평균 패스' 수치를 살펴보면 2.519회(11위)로 매우 간결한 축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골 시퀀스 '평균 다이렉트 스피드' 수치



*골 시퀀스에서 상대 골대 방향으로의 볼 전개 속도, 직선 이동거리를 토대로 계산

주요 역습 분석



수원

실리 축구 완성한 역습

수원의 실리 축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중 하나는 역습이었다. 수원은 박건하 감독 체제 하에서 역습에 특화된 팀으로 완전히 탈바꿈 했다. 김민우, 고승범, 김태환 등 기동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수원의 최대 강점이다. 왕성한 활동량을 통해 역습 루트를 만들어나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본격적인 데뷔 시즌을 치른 2002년생 정상빈의 빠른 스피드가 가세해 한층 더 무서워졌다.

대구

역습의 강호

대구 is 전통적인 '역습의 강호'다. 안드레 감독이 이끌던 2019년부터 백스리를 기반으로 한 빠른 역습 컨셉을 쫓 구사해왔다. 이번 시즌에도 대구는 다양한 역습 루트의 형태를 보였는데, 그 중심에는 세징야와 양쪽 윙백이 있다. 세징야의 솔로 플레이를 활용하거나, 양 윙백의 기동력을 내세워 빠르고 위협적인 역습을 선보였고, 후반기 이후부터는 킥이 정확한 라마스의 합류로 한층 더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했다.



광주

측면의 위력

광주의 스피드는 측면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이번 시즌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역습을 펼쳐온 광주는 엄지성, 엄원상, 김주공 등 측면에 포진한 빠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역습시 중앙의 투톱은 침투보다 연계 플레이에 치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수비시 낮은 지점까지 깊게 내려오기 때문에 후방에서 탈취한 볼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다.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측면 선수들이 투톱을 연결고리 삼아 전방으로 침투하며 광주의 역습을 완성시켰다.



주요 압박 분석



포항

포항은 4-4-2 대형을 통해 윗선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한다. 수비 시작 시점부터 막연히 압박을 가하기 보다, 철저히 진영을 갖추고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해 상대 선수를 조여 가는 식이다. 특히 전방 2톱의 활동량과 수비 가담이 인상적이다. 볼을 탈취당한 직후에 가하는 압박도 상당하다. 전방에서는 볼 소유권을 내준 직후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며, 후방에서는 미드필더와 윙백이 위치를 잡아 밸런스를 맞춘다.

• **KEY PLAYER:** 신진호, 강상우 - '공격 지역 획득' 각각 115회, 97회로 리그 전체 1, 2위를 기록했다. 신진호는 '중앙 지역 획득'에서도 리그 2위(209회)에 올랐다.

제주

남기일 감독의 압박 축구가 더 발전했다. 이번 시즌 제주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팀들을 제압해왔다. 제주는 높은 지점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한다. 전방 3톱이 중앙을 우선적으로 봉쇄하며,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낸다.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낸 뒤에는 센터백까지 적극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한다. 제주는 일정한 전술 시스템 내에서 확고한 압박 체계를 보이며 이번 시즌 파이널A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 **KEY PLAYER:** 이창민 - 부가데이터를 통해 선수들의 활약상을 알아보는 '다이나믹 포인트'에서 미드필더 부문 1위(전체 4위)를 차지했다. 제주의 도약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인물로, 공격은 물론 수비 지표에서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20.53 제주의 경기당 평균 인터셉트 횟수. 20회 이상을 기록한 팀은 K리그1 내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는 올 시즌 780개의 인터셉트를 기록했다. 그 뒤는 인천(경기당 18.84, 총합 716개), 포항(경기당 18.34, 총합 697개)이 따랐다.

41.3 울산이 보인 공격 지역 그라운드 결합 성공률. 41%대를 기록한 팀은 울산 뿐이다. 40%대는 수원FC(40.9), 인천(40.8), 제주(40.6)가 있다. 이 부문 가장 낮은 수치는 36% 대였는데, 광주(36.6)와 전북(36.8)이 기록했다.

174 제주가 올 시즌 기록한 공격 지역 차단 횟수 총합. 제주는 경기당 4.57개를 해 보이며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2위는 강원이다. 경기당 4.42개, 시즌 총합 168회 공격 지역에서의 차단에 성공했다.

2.29 울산이 기록한 경기당 탈압박 횟수. 울산은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이 가장 좋은 팀이었다. 2점대를 기록한 팀은 울산을 포함해 4팀(전북 2.55, 포항 2.29, 서울 2.18)이다.

PRESSING 압박

빠른 역습에는 강한 압박이 선제되어야 하기 마련이다. 압박을 통해 볼을 탈취해야 역습을 전개할 수 있다. 2021시즌에는 포항과 제주, 그리고 서울이 압박 면에서 두드러졌다.

올 시즌 가장 적극적인 수비를 펼친 팀은 포항과 제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팀은 포항이다. '압박 강도와 공격 진영에서의 획득 수치 모두 K리그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때 압박 강도란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상대방 골라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상대방 패스 시도 횟수 당 수비 시도 횟수로 계산된다. 수치가 낮을수록 압박 강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압박 강도 지표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팀은 서울이다. 서울은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 매우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팀으로 변모했다. 압박 강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안익수 감독 지휘 아래 서울은 압박 강도 9.66을 기록했다. K리그1 12팀의 시즌 전체 수치와 비교하

면 4위에 해당한다. 안익수 감독 부임 전 기록을 더한 서울의 시즌 전체 압박 강도가 10.8(6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상당한 압박 축구를 펼쳤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압박 강도는 올라간 반면, 전반적인 획득 수치는 내려갔다는 점이다. 이는 서울이 압박을 통해 직접 볼을 탈취해 내기 보다 상대의 빌드업을 누르고 실수를 유발해 볼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수비 형태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안익수 체제의 서울은 5-4-1 수비 대형을 형성한다. 중앙 공격수는 상대 미드필더를 마크해 횡 패스를 유도한다. 이때 상대 미드필더가 좌우로 빠져 공간을 얻으려 하면 중앙 미드필더가 나서 이를 수비할 수 있게 운영한다. 이후 볼이 측면으로 향하면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양 윙백까지 적극적인 압박을 가해 상대 실수를 유도한다. 동시에 최후방 수비 라인은 적극적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한다. 라인 사이 지역을 틀어막고 상대 공격수의 침투에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 **KEY PLAYER:** 팔로세비치 -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조영욱과 함께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팔로세비치가 2선에 자리잡고 기성용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오스마르가 센터백으로 안정감을 갖추면서 시너지 효과가났다.

압박 강도

(PPDA: Passes allowed Per Defensive Action)

포항	8.6
울산	8.7
제주	9.5
전북	9.8
광주	10.5
서울	10.8
강원	11.1
인천	11.4
수원FC	11.7
수원	11.7
성남	11.9
대구	12.2

공격 진영에서의 획득

포항	17.6
제주	16.8
울산	16.1
전북	16.0
서울	15.7
광주	15.4
대구	14.7
성남	14.3
수원FC	13.9
강원	13.4
수원	12.7
인천	10.2

*낮을수록 압박 강도는 높음

BUILD UP

빌드업

69.9

울산이 기록한 수비지역 전진 패스 성공률. 경기당 51.47개를 기록한 셈이다. 그 뒤는 전북이 69.1%로 따랐다. 3위는 65.7%를 보인 수원FC다.

61.2

수원FC의 공격지역 전진 패스 성공률. 61%를 기록한 전북을 따돌리고 수원FC가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수원FC는 경기당 18.66개의 공격지역 전진 패스에 성공했다.

K리그는 빠른 템포를 기반으로 하지만 세밀한 빌드업 형태를 갖춘 팀들도 있다. 울산과 전북, 그리고 강원이 그렇다. 잘 짜인 공격 형태는 효율적으로 공간을 분배하고 수적 우위를 형성한다.

모든 공격 작업의 목표는 득점이다. 득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대 진영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작업, 즉 빌드업이 중요하다. 정교한 빌드업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패스 워크다. 그리고 K리그 1 팀 중 슈팅을 만들어내는 전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한 구단은 울산과 전북, 그리고 강원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수치를 보이는 팀은 전북이다. 슈팅 시퀀스 내 평균 패스(2위)와 평균 스피드(2위) 수치에서 모두 상위권에 올랐다. 일반적으로 평균 패스 횟수가 많다면 스피드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공격이 보다 점진적으로 이뤄지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은 속도감이 처지지 않았다.

다. 실제로 2021시즌 전북은 리그 내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 가장 많은 득점을 뽑아냈다. 7골을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만들었다. '최다 득점(71골)'으로 우승을 차지한 전북의 원동력에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있었던 것이다. 수원FC의 수치도 주목할 만하다. 승격 팀 수원FC는 올 시즌 파이널A에 진입해, 최종 5위에 올랐다. 득점은 전북, 울산에 이어 3위(52골)를 기록했다. 슈팅 시퀀스를 리그 2번째로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슈팅 시퀀스 비율도 리그 2번째로 높았을 만큼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해 성과를 냈다. 슈팅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를 보면, 빌드업을 갖춘 팀으로 꼽힌 울산, 전북, 강원과 견줄만했다.



2021 K리그 슈팅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울산	4.27
전북	4.08
강원	3.98
수원FC	3.85
서울	3.57
수원	3.53
인천	3.46
포항	3.42
성남	3.42
제주	2.98
광주	2.88
대구	2.82

2021 K리그 슈팅 시퀀스 내 평균 스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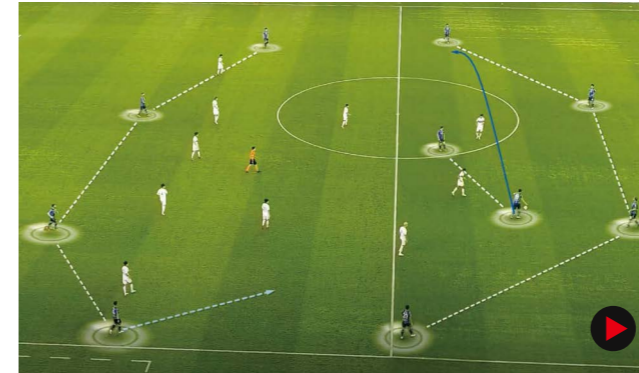
대구	31.45
전북	30.27
수원	29.80
성남	29.73
강원	29.52
수원FC	29.50
포항	29.00
광주	28.86
제주	28.28
울산	27.94
서울	27.18
인천	26.63

2021 K리그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한 득점 수

전북	7
수원FC	4
인천	3
울산	2
제주	2
포항	2
서울	2
광주	1
강원	1
서울	1
대구	0
수원	0

*동률 시 전체 골 시퀀스가 많은 팀 순으로 나열함

주요 빌드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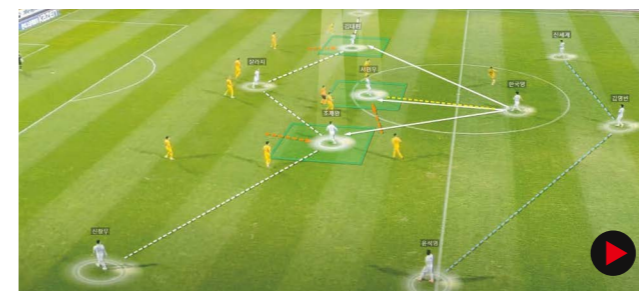
전북

전북은 공격시 측면 진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이다. 기조는 확고한 숫자 확보를 통한 공격이다. 측면에 3, 4명의 선수를 배치하여 공격을 전개한다. 뛰어난 개인 기량을 통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전개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중앙 공간을 통해 득점을 노릴 수도 있다. 측면에서 전개되는 크로스 역시 매우 위협적이다. 이번 시즌 전북은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기 위해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흔들기 보다, 측면에서부터 상대 수비를 벗겨내 득점을 노리는 양상을 보였다.



울산

울산은 K리그 내에서 가장 강한 점유 축구를 지향하는 팀이다. 평균 60.7%의 볼 점유율을 보였다. 점유 축구의 색채는 각종 패스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울산은 패스 관련 여러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올 시즌 점유 축구에 대한 지향성을 확고히 보였다. 그 기반은 고명진, 윤빛가람, 원두재 등 기술이 뛰어난 미드필더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이다. 여기에 후방의 센터백 역시 언제든지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자원들로 구성됐다. 중원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방에 공간이 펼쳐지면 이동준, 오세훈, 이동경 등의 침투를 통해 주저없이 그곳을 공략하는 팀이었다.



강원

올 시즌 '병수불'의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김병수 감독 4년 차였던 2021시즌 강원에는 점유 축구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강원은 필드 플레이어들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팀이다. 3-2-5 대형을 기반으로 하며, 두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를 통해 중앙 패스 옵션을 확보한다. 두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은 2선으로 전진하여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만약 상대 수비 진영이 이를 막기 위해 중앙으로 밀집하면, 좌우 센터백들이 전진하여 공간을 차지한다. 선수 개개인 이 볼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각각의 지역을 점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GOALKEEPING

골키퍼

올 시즌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골키퍼들이 K리그1과 K리그2를 가리지 않고 많았다. 포항 강현무와 울산 조현우는 또다시 최고의 기량을 자랑했다. K리그2에서 복귀한 제주의 오승훈 역시 K리그1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이번 시즌부터 본격적인 주전 골키퍼로 출장하기 시작한 대구 최영은, 인천 이태희도 팀의 골문을 든든히 지키며 2021년의 주요 수문장 중 한 명으로 손꼽혔다.

최고의 선방률을 자랑한 골키퍼는 강현무다. 강현무는 109번의 유효 슈팅에 맞서 28실점만을 허용, 74.3%의 선방률을 보였다. 클린시트는 8차례 기록했다. 예기치 않은 발목 부상으로 인해 지난 9월 29R 대구전 이후

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으나, K리그1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활약을 27경기에서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리그1 시상식에서 베스트11 골키퍼 부문을 수상한 조현우의 활약도 눈에 띈다. 올 시즌 조현우는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선방률 2위(73.4%)에 올랐다. 154번의 유효 슈팅 가운데 실점으로 이어진 슈팅은 41개다. 출장 시간이 길어 비교적 실점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실점의 반대급부로 선방 역시 많다. 조현우는 총 113회의 선방을 기록했다. 선방률 상위 10명의 골키퍼 중 조현우보다 선방 횟수가 높은 선수는 서울 양한빈(114회) 밖에 없다.

골키퍼 기록도 흥미롭다. 가장 정확한 킥 실력은 수원FC의 유현이 보였다. 유현은 전체 129개의 장거리 골킥 가운데 69개를 성공시켰다. 53.5%의 압도적인 성공률이다. 유현은 K리그1 골키퍼 중 유일하게 50% 이상의 장거리 골킥 성공률을 기록했다. 유현의 높은 골킥 성공률의 한 가지 요인으로, 필드 플레이어와의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다. 수원FC의 필드 플레이어들은 뛰어난 피지컬을 자랑한다. 전방에 라스, 양동현, 이영준, 정재용 등 신체 조건이 뛰어난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특히 197cm의 신장을 가진 라스의 영향력이 크다. 라스는 공중전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에도 탁월한 선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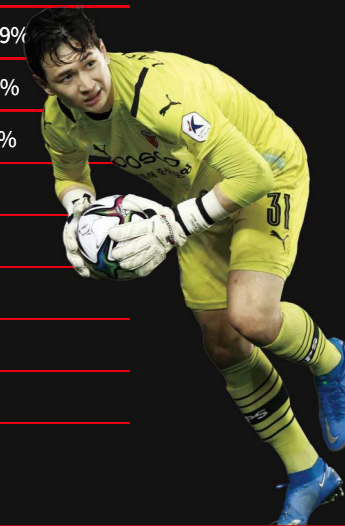
수비 안정의 대전제는 좋은 골키퍼의 존재라 할 수 있다. 골키퍼 투톱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강현무, 조현우는 2021시즌에도 팀의 수비력에 기여했다. 부산의 골키퍼 활용은 결과를 떠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2021 K리그 GOALKEEPER TOP 10

	출전 경기 수	장거리 골킥 성공률	선방률
강현무(포항)	27	38.6%	74.3%
조현우(울산)	38	37.5%	73.4%
오승훈(제주)	25	38.2%	72.9%
양한빈(서울)	36	34.3%	72.6%
송범근(전북)	37	45.0%	72.4%
이범수(강원)	29	27.0%	70.8%
이태희(인천)	26	39.8%	68.7%
유현(수원FC)	23	53.5%	68.3%
최영은(대구)	36	44.0%	67.9%
윤보상(광주)	22	33.3%	66.7%

*순위는 20경기 이상 출전 선수 중 선방률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다.



주요 팀 분석 | 부산

K리그 부산의 히카르도 페레즈 감독은 2021시즌 골키퍼를 빌드업 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부산은 K리그2 10팀 중 골키퍼의 평균 패스 횟수가 40회를 넘는 유일한 팀으로 나타났다. 30회 이상의 평균 패스 횟수를 기록한 팀 역시 전무하다.

올 시즌 부산은 출전 기회를 최필수(20경기)와 안준수(15경기)에게 양분했다. 주전 골키퍼 한 명을 두고 시즌을 운영하는 보편적인 시스템과 달리, 부산은 골키퍼를 두 선수를 주전급으로 활용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문은 부산이 필드에서 이뤄지는 공격 상황에 최대한 골키퍼를 개입하게 했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적극적인 패스 플레이를 펼치며, 공격 시 '필드 플레이어 +1'의 효과를 누리게

끔 운영했다. 양 센터백은 측면으로 넓게 퍼져 골키퍼의 힐 패스 옵션이 되어 주었다. 백스리를 활용할 때면 가운데 센터백이 한 칸 전진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는 전형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부산이 이 같은 골키퍼 활용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본 것은 아니다. 골키퍼의 개입을 통해 상대보다 많은 공격 숫자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수적 우위를 통해 공간을 얻은 선수에게 정확히 볼을 전달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올 시즌 K리그2 팀들의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이 뛰어났던 점이 페레즈 감독의 구상을 틀어지게 했다. 결과적으로 큰 빛을 보지 못한 가장 두드러진 이유가 앞선 두 가지다. 하지만 국내 무대에서 이러한 전술적 시도가 이뤄졌다는 자체만으로 충분히 조명 받을만하다.



K리그2 골키퍼의 평균 패스 횟수 TOP 10

부산	41.41
대전	29.77
안산	29.67
안양	29.23
부천	26.39
서울E	26.25
경남	26.24
전남	26.22
충남아산	25.43
김천	22.71

POSS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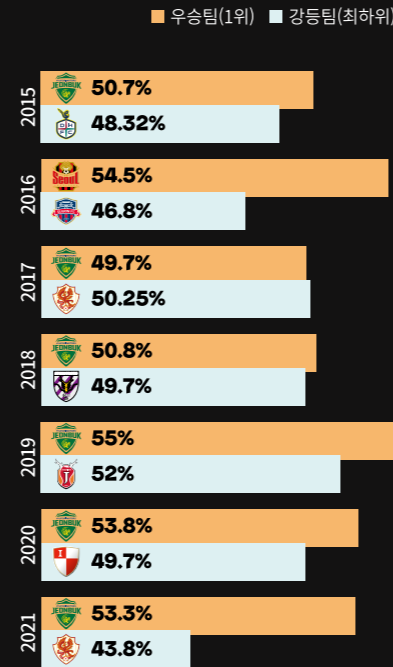
볼 점유

볼 소유가 경기의 지배, 즉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승 경쟁을 했던 울산과 전북 그리고 강등팀 광주와 수원의 수치는 볼을 현명하게 소유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2021시즌 울산은 점유하는 축구를 했다. 평균 60.7%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다.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인 팀은 울산이 유일하다. 32R 광주전에서는 올 시즌 팀 내 최고 점유율인 73.4%를 기록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울산이 가장 낮은 표준편차 값을 보였다. 4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였던 경기는 4R 포항전(36.1%)이었다. 이는 울산이 결과와 관계없이 시즌 내내 최대한 비슷한 스타일을 유지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점유율 표준편차 값이 가장 큰 팀은 제주였다. 제주는 올 시즌 K리그1 한 경기 내 최고 점유율인 74.6%를 6R 광주전에서 기록했다. 반면 32R 포항전에서는 경기 시작 40분 만에 3-0 리드를 잡는데 성공해, 수비적으로 크게 내려앉으면서 최저 점유율(30%) 경기를 했다. 우승 팀 전북의 점유율 수치는 효율성이 눈에 띈다. 올 시즌 리그 5연패에 성공한 전북은 53.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71골을 뽑아냈다. K리그1 내 가장 높은 '점유율 대비 득점 수치'다. 일관성이 있었다. 전북은 울산 다음으로 낮은 표준편차 값을 보인 팀이었다. 2015년 이후 우승, 강등 팀의 점유율 상관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7시즌 중 6차례 우승을 차지한 전북의 점유

율은 전반적으로 최강희 감독이 팀을 떠난 2019년 이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는 53.8%를 기록한 지난 해와 비슷했다. 2015년 이후 우승 팀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4번째로 높았다. 최하위 팀은 대체로 40% 후반대에서 50% 초반대에 그쳤다. 이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팀은 2019년의 제주(52%)였다. 당시 제주는 윤빛가람, 아길라르, 윤일록 등을 공격전에 내세운 스퀴드를 구성했으나 끝내 강등했다. 올 시즌 광주의 점유율 지표는 특이점이 있다.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낮았으나 승점 수확면에서는 역대 강등 팀 내 상위권에 올랐다. 올 시즌 광주의 점유율(43.8%)은 2015년 이후 역대 강등팀 중 가장 낮았다. 두 번째로 낮은 수원FC와도 무려 3%의 차이다. 그러나 경기당 승점은 0.97점으로, 2016년의 수원FC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의 수원FC는 38경기에서 승점 39점을 쌓으며 경기당 1.02점을 얻었다. 득점(1.1골) 역시 2019년의 제주(1.18골), 2018년의 전남(1.13골) 다음으로 높다. 이를 통해 점유율과 득실, 그리고 승패가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볼은 현명하게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

K리그 역대 우승팀/최하위팀 점유율 비교



2021 K리그 평균 점유율

구단	점유율
울산	60.7%
포항	56.2%
전북	53.3%
서울	53.1%
강원	51.6%
수원FC	49.4%
제주	49.3%
수원	48.0%
서울	47.3%
인천	44.7%
광주	43.8%
대구	42.5%



CROSSING

크로스

좌우 움직임을 통해 직접적으로 골을 노리는 크로스는 측면 자원들의 영향을 받는다. 포항과 전북이 이 부문에서 돋보이는 이유다. 예상과 다르게 언뜻 돋보이지 않는 대구의 기록은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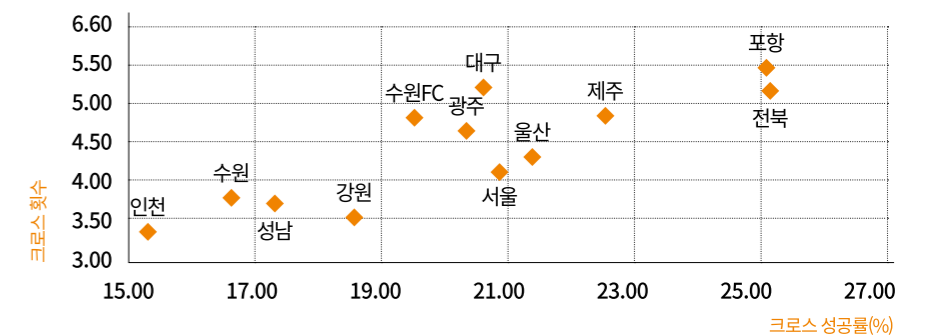
2021시즌 크로스 횟수와 성공 면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보인 구단은 포항이다. 경기당 5.45회의 크로스를 성공시켜 K리그 내 최고였다. 이는 임상협, 강상우, 팔라시오스 등 측면에서 파괴력을 지닌 자원들을 잘 활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중앙 미드필더 신진호의 크로스 기록도 눈에 띈다. 이번 시즌 신진호는 170회의 크로스를 올렸다. 전체 선수들 중 4번째로 많은 크로스 시도 횟수다. 대구의 기록도 인상적이다. 대구는 경기당 20.68회의 크로스를 전개해 5.11개를 성공했다. K리그1 12팀 가운데 가장 높은 크로스 성공률(24.7%)이다. 대구와 함께 24%대의 크로스 성공률을 보인 팀은 수원FC(24.1%) 뿐이다.

대구와 함께 24%대의 크로스 성공률을 보인 팀은 수원FC(24.1%) 뿐이다. 대구의 주요 공격 루트는 크로스다. 간결한 공격을 전개하며 박스 안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넣어 득점 기회를 노린다. 윙백의 오버래핑 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박스 안에서는 에드거의 높이를 통해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점한다. 세징야를 이용해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여러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크로스 시도 횟수가 낮게 산출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선수 간 볼 연결 시도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대구는 리그 내에서 가장 적은 평균 패스 횟수를 기록한 팀이다. (393.18회) 하지만, 크로스의 공격 비중을 알 수 있는 '크로스 당 패스 횟수' 수치에서는 대구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는 19번의 패스마다 한 번의 크로스를 전개하며, 타 팀에 비해 크로스의 공격 비중이 가장 높은 팀으로 손꼽혔다.

K리그 경기당 크로스 분석

구단	크로스 횟수	크로스 성공 횟수	성공률
포항	25.00	5.45	21.8%
전북	25.05	5.16	20.6%
대구	20.68	5.11	24.7%
제주	22.55	4.87	21.6%
수원FC	19.84	4.79	24.1%
광주	20.29	4.58	22.6%
울산	21.37	4.18	19.6%
서울	20.89	4.05	19.4%
수원	16.81	3.82	23.0%
성남	17.42	3.68	21.1%
강원	18.76	3.50	18.7%
인천	15.29	3.24	21.2%

그래프로 보는 K리그 크로스 횟수/성공률





04 TEAM PROFILES

*이 장의 기록은 K리그1 정규리그(38경기), K리그2 정규리그(36경기)를 기준으로 함

- 전북현대
 - 울산현대
 - 대구FC
 - 제주유나이티드
 - 수원FC
 - 수원삼성
 - FC서울
 - 인천유나이티드
 - 포항스틸러스
 - 성남FC
 - 강원FC
 - 광주FC
-
- 김천상무
 - 대전하나시티즌
 - FC안양
 - 전남드래곤즈
 - 부산아이파크
 - 경남FC
 - 안산그리너스
 - 충남아산FC
 - 서울이랜드FC
 - 부천FC1995

*스마트폰으로 팀별 페이지 상단의 QR코드를 인증하면 KEY FEATURES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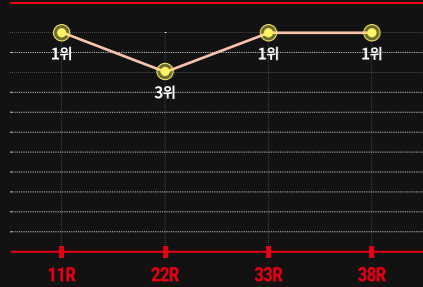
전북현대

KEY FEATURES
영상 보기 ▶



TEAM REPORT K LEAGUE 1

성적 추이 (시즌 전적 22승 10무 6패)



감독 | 김상식
생년월일 | 1976.12.17
김상식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1	22	10	6
통산	22	10	6

SUMMARY

울산과 우승 경쟁 끝에 K리그1 5연패 및 통산 9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상식 감독은 전북에서 선수-코치-감독으로 모두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주요 포메이션 |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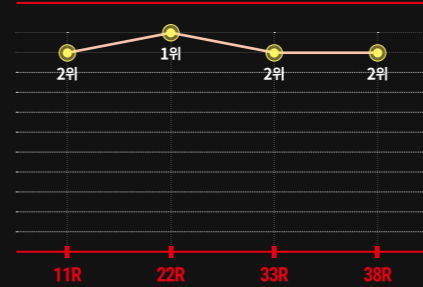
울산현대

KEY FEATURES
영상 보기 ▶



TEAM REPORT K LEAGUE 1

성적 추이 (시즌 전적 21승 11무 6패)



감독 | 홍명보
생년월일 | 1969.02.12
홍명보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1	21	11	6
통산	21	11	6

SUMMARY

탄탄한 중원플레이와 2선에서의 유기적인 공격 전개로 매력적인 축구를 선보였다. 우승레이스에서 장기간 선두를 독주했다. 시즌 막판 승점 관리 실패로 2위로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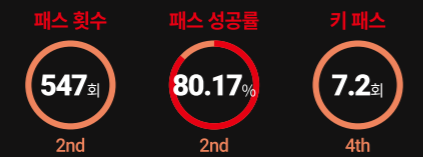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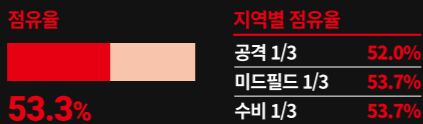
주요 포메이션 | 4-4-2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정훈	3	36	1	0
	김준홍	2	8	0	0
	송범근	37	3287	35	13
	이범영	1	90	1	0
DF	구자룡	17	1131	0	0
	김민혁	21	1886	1	0
	김진수	12	1076	0	0
	박진성	11	625	0	0
	이용	25	2224	0	2
	이우현	13	1034	0	2
	이주용	6	509	0	0
	최보경	10	802	1	0
	최철순	18	1454	0	1
	최희원	1	76	0	0
	홍정호	36	3116	2	1
MF	김보경	32	1882	3	10
	김승대	20	877	0	1
	류재문	20	1475	1	1
	백승호	25	2067	4	0
	이성윤	10	235	1	0
	이승기	27	1355	4	4
	정혁	2	114	0	0
	최영준	23	1562	0	1
	쿠니모토	25	1368	4	5
FW	구스타보	34	1722	15	5
	노윤상	1	0	0	0
	문선민	19	973	3	1
	바로우	20	1162	3	2
	사शल락	2	11	0	0
	송민규	17	1224	3	3
	이지훈	17	538	0	0
	일류첸코	34	1997	15	4
	한교원	29	1652	9	2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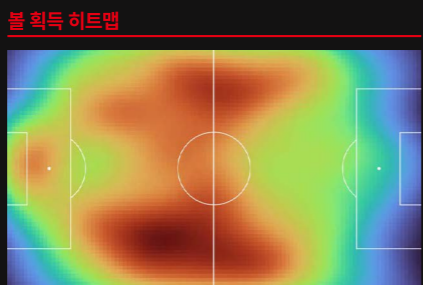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	68.3회 (12%)
중거리 패스	192.9회 (35%)
단거리 패스	285.8회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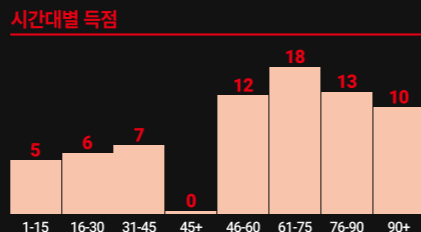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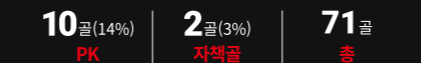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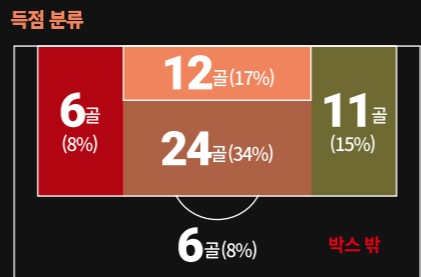
볼 관여 평균 위치: 5R vs 대구FC



*시즌 평균 점유율과 가장 근사한 경기



TEAM STATS



슈팅 시퀀스 갯수: 347개 (7th)
슈팅 시퀀스 내 평균 패스 횟수: 4.1회 (2nd)
슈팅 시퀀스 비율: 7.3% (10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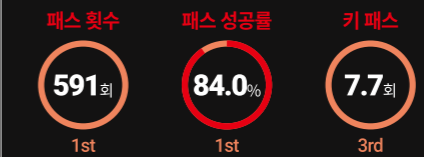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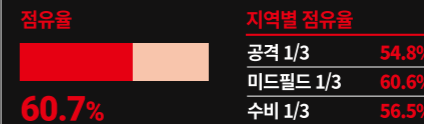
KEY FEATURES

- 리그 정상급 공격 자원 다수 보유
- 구스타보: 박스 안 득점 시도에 강점
- 일류첸코: 2선과 연계 가능
- 한교원: 공간 침투로 직접 득점 가능
- 문선민: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 공략
- 공격시 측면 적극 활용, 적극적인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상대 공략
- 시즌 후반 4-3-3 전환으로 좌우MF 공격적으로 활용.
- 3MF와 3톱 간 패스플레이 위력적
- 수비시 4-4-2 대형 형성, 라인 간 커버링을 통해 공간 막음
- 전반기 3MF 쪽 밸런스 난조. 최종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허용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조현우	38	3420	41	15
DF	김기희	36	3193	1	1
	김태현	6	129	0	0
	김태환	34	2947	0	6
	배재우	1	72	0	0
	불투이스	31	2571	3	0
	설영우	31	2110	2	3
	이명재	2	104	0	0
	임종은	11	934	1	0
	홍철	21	1535	1	1
MF	고명진	15	993	0	0
	김성준	14	616	0	2
	박용우	9	603	0	0
	신형민	18	886	0	0
	원두재	30	2428	1	1
	윤빛가람	29	2100	3	5
	이동경	28	1700	6	3
FW	강윤구	7	216	0	0
	김민준	28	915	5	1
	김인성	15	643	4	0
	김지현	17	780	1	1
	바코	34	2374	9	3
	오세훈	19	1346	7	1
	윤일록	12	476	0	2
	이동준	32	2067	11	4
	이창용	25	1331	3	1
	히타저어	20	1073	6	1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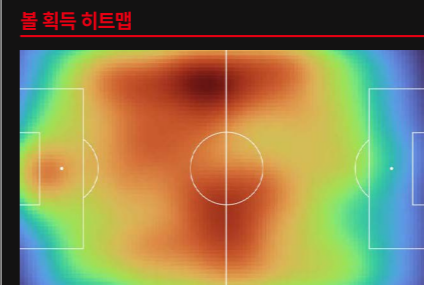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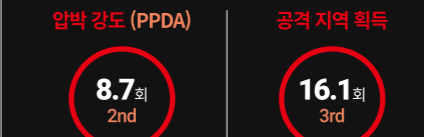
패스 분포

장거리 패스	76.1회 (13%)
중거리 패스	217.7회 (37%)
단거리 패스	296.9회 (50%)

볼 관여 평균 위치: 34R vs 수원FC



*시즌 평균 점유율과 가장 근사한 경기



PLAYER STATS

GOAL	골	유효슈트	xG
일류첸코	15	31	12.84
구스타보	15	26	11.65
한교원	9	19	9.03

ASSIST	도움	키패스	크로스
김보경	10	31	148
쿠니모토	5	20	91
구스타보	5	2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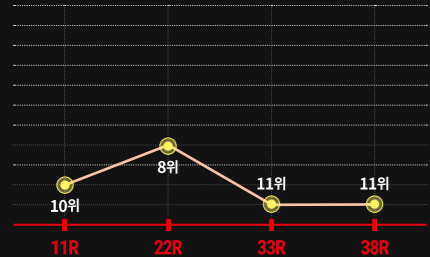
PLAYER STATS

GOAL	골	유효슈트	xG
이동준	11	25	9.45
바코	9	35	11.72
오세훈	7	12	2.78

ASSIST	도움	키패스	크로스
김태환	6	34	165
윤빛가람	5	38	114
이동준	4	25	63



성적 추이 (시즌 전적 10승 13무 15패)



Coach info table: 감독 | 최용수, 생년월일 | 1973.09.10, 최용수 감독 전적 table

SUMMARY

약재(코로나 확진, 교통 사고 등)를 동반한 변수로 베스트 멤버를 풀가동한 경기가 많지 않았다. 부진 끝에 시즌 막판 감독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생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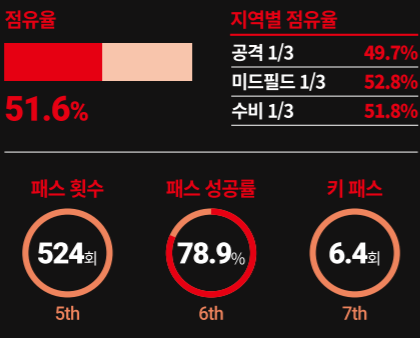
주요 포메이션 | 3-5-2



SQUAD

Squad list table with columns for position, name, games played, minutes, goals, assists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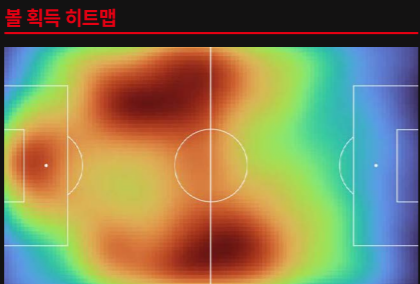


Pass distribution table: 정거리 패스, 중거리 패스, 단거리 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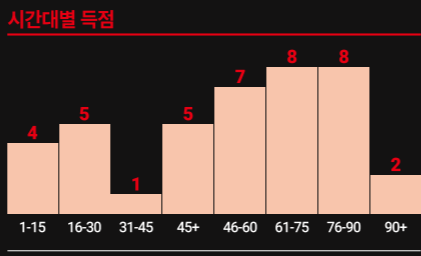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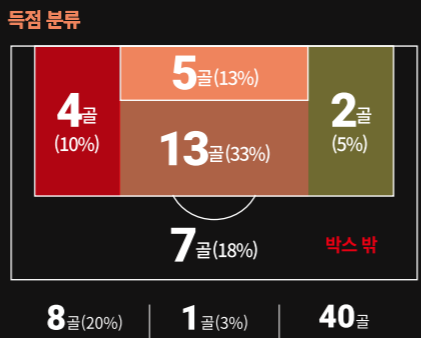
볼 관여 평균위치 22R vs 수원



*시즌 평균 점유율과 가장 근사한 경기



TEAM STATS



Set piece statistics table: 슈팅 시킨스 갯수, 슈팅 시킨스 내 평균 패스 횟수, 슈팅 시킨스 비율

KEY FEATURES

- 전반적으로 패스 플레이 공간 인지 능력이 뛰어난 편. 패스 게임을 통해 경기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팀
중양MF와 윙어가 적극적으로 공간 찾아들어감. 패스 옵션 만들어내려는 움직임 시도
센터백과 미드필더의 적극적인 볼 관여. 수적 우위 형성
역습시 윙어들의 주력을 통해 수비 뒷공간 공략
결정력이 매우 좋지 않았던 문제. 기대 득점 대비 실 득점수가 2번째로 낮은 팀
수비시 5-4-1, 또는 4-4-2 대형. 기본적으로 내려 서나, 압박 상황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편
박스 안으로 볼이 투입될 경우 상대를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며 기회 허용

평균 연령 24.8세, 경고 및 퇴장 7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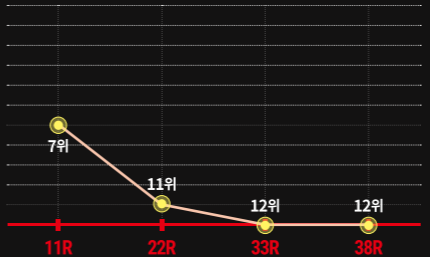
PLAYER STATS

Goal and Assist stats table

Assist and Cross stats table



성적 추이 (시즌 전적 10승 7무 21패)



Coach info table: 감독 | 김호영, 생년월일 | 1969.10.29, 김호영 감독 전적 table

SUMMARY

주축 선수들의 이적과 부상, 뒷심 부족 등으로 험난한 시즌을 보냈다. 수비라인이 견고 하지 못해 후반 실점이 많았다.

주요 포메이션 | 4-2-3-1



SQUAD

Squad list table for Gwangju 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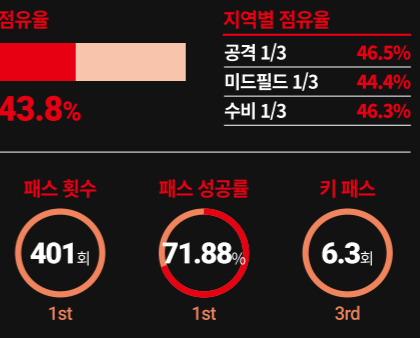
평균 연령 27.3세, 경고 및 퇴장 69, 0

PLAYER STATS

Goal and Assist stats table for Gwangju 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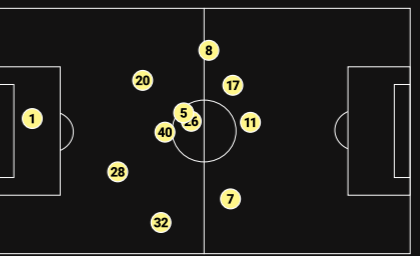
Assist and Cross stats table for Gwangju FC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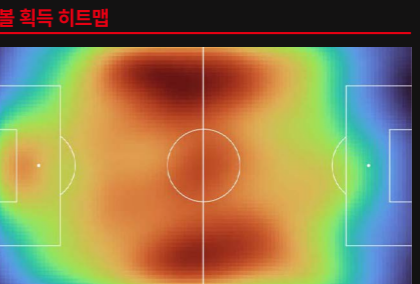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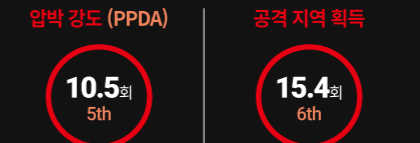


Pass distribution table for Gwangju 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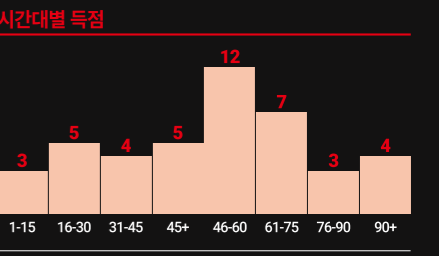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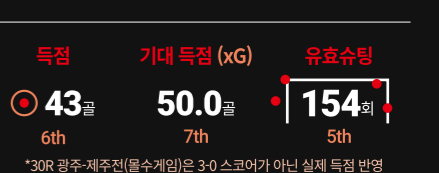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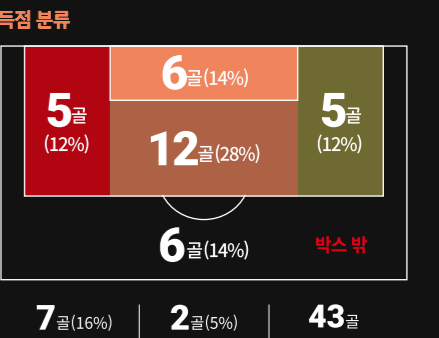
볼 관여 평균위치 31R vs 전북



*시즌 평균 점유율과 가장 근사한 경기



TEAM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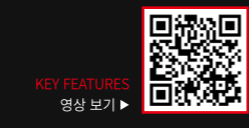
Set piece statistics table for Gwangju FC

KEY FEATURES

- 측면MF의 스피드를 활용한 간결한 공격 색채가 뚜렷. 중앙에는 기술이나 피지컬로 볼을 지켜줄 수 있는 선수들이 존재
측면 공격시 간결한 콤비네이션 플레이. 윙백이 볼 건넌 후 전방으로 색조하는 패턴
역습시 투톱이 중앙서 연결 고리 역할. 측면MF가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
수비시 4-4-2 대형. 투톱이 낮은 지점까지 내려오고, 중앙 MF가 수비 라인 적극 커버
센터백 쪽에서 종종 마크맨을 놓치는 문제
수비시 넓게 벌려선 상대에 대한 대응이 잘 되지 않는 문제. 마크맨 설정 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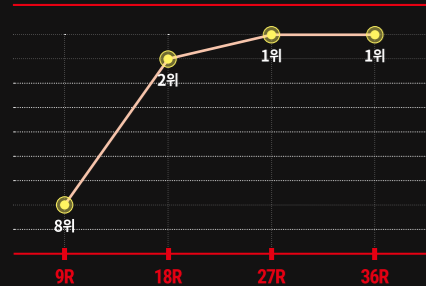


김천상무



TEAM REPORT **K LEAGUE 2**

성적 추이 (시즌 전적 20승 11무 5패)



감독 | 김태완
생년월일 | 1971.06.01
김태완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1	20	11	5
통산	70	45	76

주요 포메이션 |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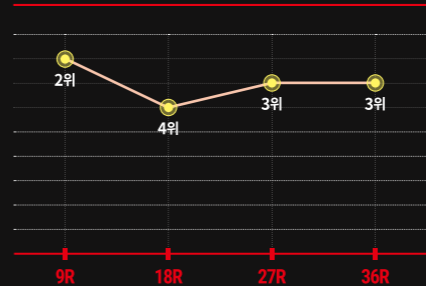


대전하나시티즌



TEAM REPORT **K LEAGUE 2**

성적 추이 (시즌 전적 17승 7무 12패)



감독 | 이민성
생년월일 | 1973.06.23
이민성 감독 전적

	승	무	패
2021	17	7	12
통산	17	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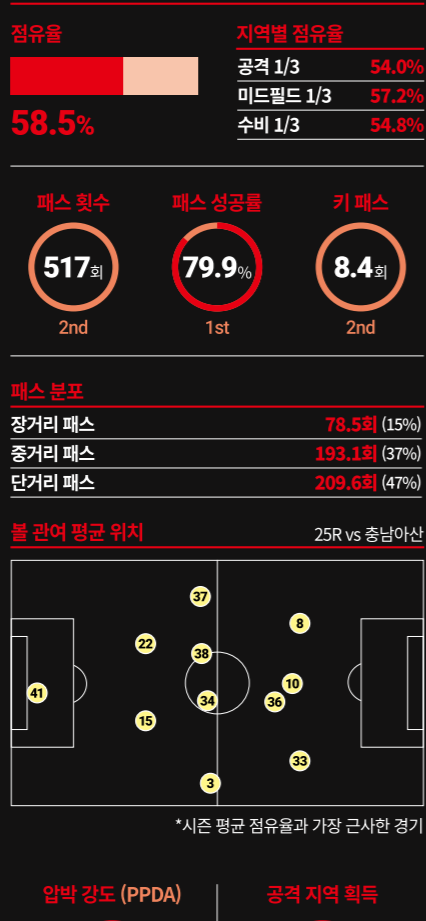
주요 포메이션 | 3-4-3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강정욱	7	630	8	2
DF	고명석	4	360	0	0
MF	김지훈	16	1162	2	1
FW	김민석	1	77	0	0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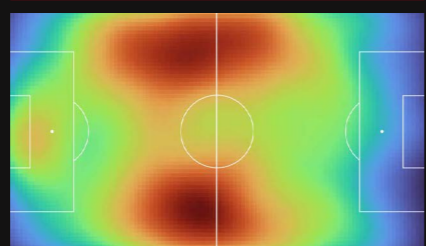


PLAYER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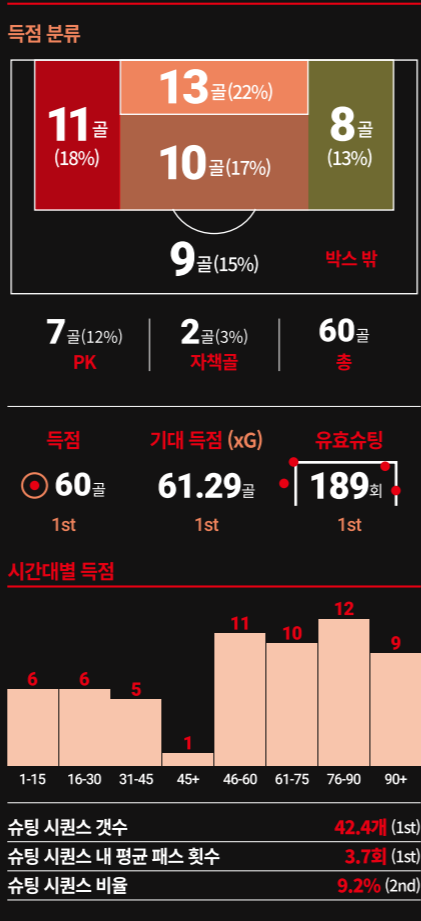
GOAL	골	유효슛	xG
박동진	9	28	9.15
조규성	8	24	9.34
허용준	7	25	6.70

ASSIST	도움	키패스	크로스
심상민	3	21	101
허용준	3	22	54
서진수	3	15	30

볼 획득 히트맵



TEAM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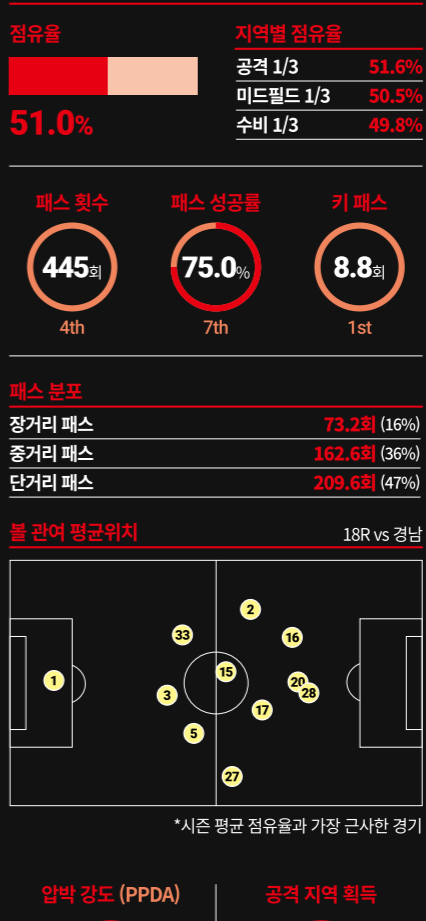
KEY FEATURES

- 측면 크로스 통한 타겟 스트라이커 득점, 윙어 스피드 활용, 중원에서 점진적 전개 등 다양한 득점 루트
- 측면 크로스: 윙백의 공격적인 움직임 통해 기회 창출
- 정승현-우주성으로 이뤄진 센터백 라인의 패스 능력 매우 뛰어나
- 윙어의 뒷공간 채도를 통한 간결한 전개. 수비 라인의 킥력 역시 뛰어나
- 역습시 윙어 주력 적극 활용
- 수비시 압박 지점 높음. MF라인의 압박 범위가 넓고 상대의 패스 옵션을 적극적으로 제한
- 수비 1/3 지역에서 수비수 수비 라인이 타점을 놓치는 문제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분)	실점	무실점
GK	김동준	25	2250	40	1
DF	김민덕	30	2532	1	0
MF	구분상	1	28	0	0
FW	김세혁	1	9	0	0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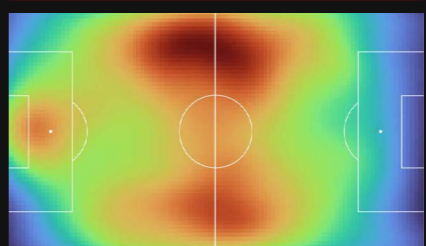


PLAYER 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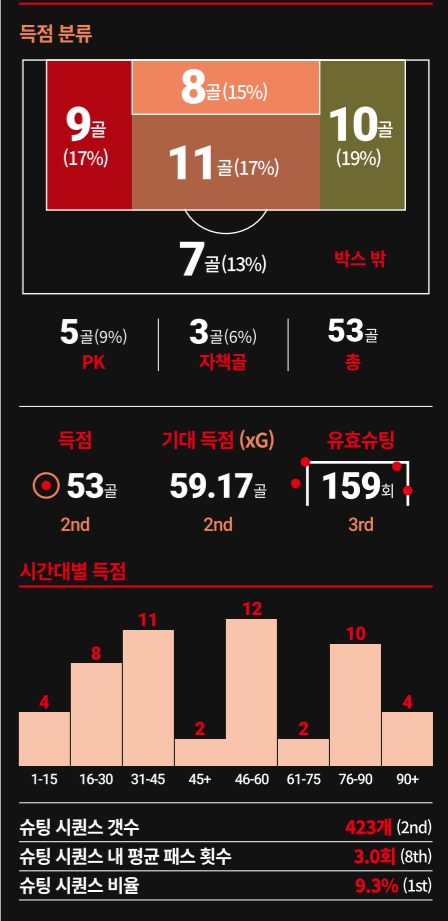
GOAL	골	유효슛	xG
마사	9	13	6.28
박인혁	6	19	8.51
이현식	5	11	3.83

ASSIST	도움	키패스	크로스
이현식	5	30	28
김승섭	5	24	72
공민현	4	15	5

볼 획득 히트맵



TEAM STATS



KEY FEATURES

- 센터백의 킥 통한 1선에서의 다이렉트 플레이에 강점
- 윙백의 빠른 오버래핑 통한 측면에서의 찬스 메이킹
- 3선에서 시도되는 박진섭의 중거리 슈팅 역시 주요 득점 루트
- 공민현과 마사 합류 후 원활한 패스 플레이. 자유로운 포지셔닝과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
- 상대가 크게 내려앉았을 경우, 종종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문제
- 상대가 볼 소유에 약한 팀일 경우, 수비시 1-2선에서 강한 압박 시도
- 상대 측면 크로스로 종종 수비 진영서 선수를 놓치는 문제

비프로11 (BEPRO11) 데이터 정의

공격전개 | 슈팅까지 이어진 과정

유효슈팅 | a)득점으로 연결되거나, b)골문 안으로 향했으나 골키퍼에 의해 막힌 모든 슈팅

패스 | 선수가 의도적으로 공을 동료에게 연결하려고 시도한 행위

키패스 | 슈팅으로 이어진 마지막 패스 또는 크로스

단거리 패스 | 길이가 15m 이내인 짧은 패스

중거리 패스 | 길이가 15m~30m인 패스

장거리 패스 | 길이가 30m 이상인 긴 패스

수비지역(진영)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했을 때 수비 진영에서 시작된 패스

중앙지역(진영)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했을 때 중원에서 시작된 패스

공격지역(진영) 패스 | 전체 경기장을 3등분 했을 때 공격 진영에서 시작된 패스

드리블 돌파 | 일대일 돌파를 포함, 선수가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대 수비를 돌파해내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

차단 | 수비수가 상대 플레이를 방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볼 소유권까지는 탈취하지 못한 상황

탈압박 | 선수가 볼 컨트롤을 통해 상대의 압박 수비에서 벗어나 공격을 이어가는 행위

클리어 | 선수가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공을 안전한 지역으로 걷어낸 행위

태클 | 상대로부터 공 소유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리를 뺀 행위

공중볼 경합 | 우리 팀과 상대 팀 선수가 공중에 뜬 공을 획득하기 위해 헤더 경합하는 상황

그라운드 경합 | 우리 팀과 상대 팀 선수가 중립 지역으로 흐른 공을 확보하기 위해 경합하는 상황

인터셉트 | 선수가 패스를 가로채거나 적극적으로 수비를 시도하여 공 소유권을 되찾아온 행위

획득 | 선수가 중립 지역으로 흐른 공을 잡거나 선수 쪽으로 흘러온 공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공 소유권을 되찾아온 행위

볼미스 | 선수가 터치 실수, 컨트롤 실수, 캐치 실수 등으로 공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상황

피파울 | 우리 팀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파울을 당해 우리 팀이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을 얻은 상황

xG(eXpected Goals) | 기대 득점. 특정 슈팅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값은 슈팅 위치 및 각도, 연결된 패스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됨

PPDA |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상대방 골라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상대방 패스 시도 횟수 당 수비 시도 행위로 계산됨

시퀀스 | 볼 소유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속적인 행위의 모음. 시퀀스 시작은 공 볼 점유의 시작이며 상대의 수비, 슈팅, 볼 아웃 등 상황에 의해 종료됨

슈팅 시퀀스 | 슈팅으로 이어진 시퀀스

득점 시퀀스 | 득점으로 이어진 시퀀스



2021 K LEAGUE TECHNICAL REPORT

발행처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BEPRO11

기획 및 편집 주식회사 히든케이

발행지 서울특별시 중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E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BEPRO11의 K리그 부가 기록 기준에 따릅니다.

원큐



K

K LEAGUE



2021
K LEAGUE
TECHNICAL
REPORT

원큐 K LEAGUE

2021

WINNERS

하나원큐 K LEAGUE 2 2021

WINNERS